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33호 【루계 제24546호】 주체103(2014)년 5월 13일 (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이 땅우에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자

3호대형원추형파쇄장건설 빠른 속도로 진척

무산광산련합기업소에서

무산광산련합기업소에서 3호대형원추형파쇄장건설이 일정계획을 앞당기며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있다.

북방의 사나운 강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몸소 무산광산련합기업소를 여러차례 찾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박토파쇄장건설을 다그쳐 끝내고 새로운 광석파쇄장을 건설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어버이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련합기업소가 굴지의 쇠돌생산기지로서의 위력을 남김없이 떨치도록 획기적인 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

당이 준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2호대형원추형파쇄장을 짧은 기간에 건설하여 박토처리능력을 훨씬 높인 무산의 로동계급은 만만한 배심을 안고 3호대형원추형파쇄장건설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희망찬 새해에 승리에 대한 확신과 열정에 넘쳐 영웅적진군을 다그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일대 번영기를 열어놓아야 합니다.》

3호대형원추형파쇄장이 건설되면 조광처리능력이 종전에 비하여 훨씬 높아질뿐아니라 조쇄, 중쇄공정들에서 설비들의 부하를 덜어주고 그 수명을 늘임으로써 련합기업소적인 철정광생산능력을 한계단 끌어올릴수 있게 된다.

현대적설비들을 갖춘 능력이 큰 3호대형원추형파쇄장이 일떠서면 무산광산련합기업소는 굴지의 대광물생산기지로서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게 된다.

련합기업소에서는 지난해부터 3호대형원추형파쇄장의 기술설계를 빠른 시일안에 완성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었다. 특히 당책임일군을 비롯한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이 직접 현지를 밟아보고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면서 기술자들의 창조적지혜를 적극 불러일으켰다. 그리하여 짧은 기간에 기술과제서가 완성되고 공사를 본격적으로 내밀수 있는 과학기술적담보를 마련하였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실력있고 내밀성있는 일군들로 현장지휘부를 조직하고 끌끌한 청년들로 돌격대를 무어 공사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였다.

김관훈동무를 비롯한 현장지휘부일군들은 인민군대의 지휘관들처럼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령을 치며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서 돌파구를 열어제끼고있다. 그들은 불꽃튀는 현장에 전투지휘부를 정하고 파쇄장건설을 하루빨리 다그쳐 끝내기 위한 전투조직과 지휘를 혁명적으로 진행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올해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돌격대원들과 련합기업소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불타는 애국적열의를 다 바쳐 파쇄장건설에서 련일 혁신적성과를 이룩해나가고있다.

지난 4월초 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4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돌격대원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방대한 토량을 처리하고 기초굴착과 바닥콩크리트치기를 성과적으로 진행한데 이어 파쇄장골조공사에 진입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였다.

공사장의 어렵고 힘든 모퉁이마다에 청년돌격대원들이 어깨를 들이밀고 돌파구를 열어나가고있다.

청년돌격대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신 전투적과업을 빛나게 관철하기 위한 오늘의 보람찬 투쟁에서 선군청년전위의 영예를 남김없이 떨칠 불같은 일념안고 소대별로 맹렬한 사회주의경쟁을 벌리며 청춘의 기개를 남김없이 떨치고있다. 이들은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기풍을 높이 발휘하여 불리한 조건에서도 수천㎥의 토량을 처리하고 기초굴착공사를 5일동안에 끝내였으며 그 기세를 늦춤이 없이 바닥콩크리트치기를 짧은 기간에 해제끼는 성과를 거두었다.

대보수분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경제강국건설에서 자신들이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갱도건설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파쇄장을 하루빨리 건설하여 올해 높아진 철정광생산계획을 무조건 넘쳐 수행할 불타는 열정은 물동량운반을 맡은 운전사들의 심장속에서도 세차게 끓어넘치고있다. 운광사업소의 대형화물자동차운전사들은 부속품들을 자체로 마련하면서 매일 수천㎥의 토량을 운반하고있으며 정광수송대의 운전사들은 정광을 운반해야 하는 바쁜 속에서도 짬시간을 리용하여 건설장에 많은 량의 모래와 자갈을 실어주어 건설속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있다.

작업장들마다에서 울리는 선동원들의 열띤 화선선동과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의 힘있는 경제선동이 치렬한 전투가 벌어지는 공사장의 분위기를 더한층 고조시키고있다.

봉사관리소를 비롯한 련합기업소의 여러 단위들과 광부가족들의 힘있는 지원사업이 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의 사기를 부쩍 높여주고있다.

공사에 참가하고있는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이 파쇄장건설에서 큰 몫을 맡아해제끼고있다. 이들은 콩크리트구조물들에 대한 기술지도를 책임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집체적지혜와 힘을 합쳐 대형원추형파쇄기의 설치와 조립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자체의 힘과 지혜로 풀어나가고있다.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련합기업소에서는 건설이 일정계획보다 앞당겨지는데 맞게 자재와 설비들을 제때에 보장해주고 돌격대원들의 생활조건을 더욱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도 큰 힘을 넣고있다.

무산의 로동계급은 뜻깊은 당창건기념일전으로 3호대형원추형파쇄장건설을 끝낼 높은 목표를 내걸고 힘찬 돌격전을 들이대고있다.

특파기자 리은남

세상에 부럼없어라

◇ 위대한 어머니당의 크나큰 은정속에 훌륭히 일떠선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첫기야영이 시작되였다. 지금 야영생들은 세상에 자랑할만 한 아이들의 호텔, 멋쟁이궁전에서 한생의 영원한 추억으로 간직될 야영생활의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고있다.

《새로 건설된 수족관이 제일 인상깊습니다.》, 《야외운동장에서 뽈차기가 정말 신바람납니다.》, 《이런 희한한 궁전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놀라움과 찬탄, 격정과 고마움에 젖은 목소리들이 야영소의 그 어디에서나 울려나오고있다.

얼마나 복받은 우리의 학생소년들인가.

누구라 할것없이 이 땅 그 어디서나 볼수 있는 평범한 아이들이다. 각지의 초급중학교, 중등학원 학생들과 원아들, 최전연초소 군인자녀들과 전국소년축구경기대회 결승경기참가자들, 학습과 조직생활에서 모범인 소년단원들… 이들이 바로 오늘의 행복과 기쁨의 주인공, 희한한 궁전의 주인이 되였다.

하기에 야영시작모임에서 우리의 학생소년들은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를 심장으로 부르며 사회주의조국의 기둥감들로 억세게 자라날 맹세를 굳게 다지였다.

◇ 세상에 부럼없어라, 이것은 선군조선의 학생소년들만이 터칠수 있는 어머니 우리 당에 대한 송가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후대들의 밝고 명랑한 모습에 바로 우리의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으며 혁명하는 보람이 있습니다.》

얼마전 남조선에서는 려객선 《세월》호를 타고 제주도로 수학려행을 가던 수백명의 학생들이 한날한시에 수장당하는 참사가 빚어졌다. 수많은 아이들이 침몰되는 배안에서 이제나저제나 구원을 기다렸건만 그들에게 차례진것은 죽음뿐이였다.

《세월》호의 참상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것은 썩고 병든 자본주의사회에서 아이들의 밝은 앞날이란 기약하기 어려운 《세월없는 일》이라는것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학생소년들은 세상에 부럼없는 만복을 누리며 씩씩하게 자라고있다. 후대들을 위함이라면 천만금도 아끼지 않는 우리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에 의하여 나라의 곳곳에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일떠서고 밝고 명랑한 아이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끝없이 울려나오고있다. 태여나면 애기궁전, 자라나면 소년궁전이 아이들을 반겨맞아주고 당과 국가가 수백만 학생소년들을 한품에 안아 희망과 재능을 활짝 꽃피워주는 이런 아이들의 왕국이 세상 그 어디에 또 있겠는가.

◇ 우리의 학생소년들은 억만금의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귀중한 보배이며 희망과 미래의 전부이다.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학생소년들을 제일로 아끼고 귀중히 여기시며 주실수 있는 온갖 사랑과 은정을 다 베풀어주고계신다.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후대관, 미래관을 심장깊이 새기고 새 세대들을 위한 사업을 당과 국가의 제일중대사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개건공사에서 발휘한 조선인민군 장병들의 투쟁정신을 적극 따라배워 후대들을 위하여 더 많이 창조하고 더 많이 건설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세상에 부럼없어라》라는 아이들의 행복의 노래소리가 끝없이 울려퍼지게 하여야 한다.

대고조전투장들에 더 많은 세멘트를 생산보장할 일념안고 증산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찍음

중소형발전소의 덕을 크게 본다

연산군에서

연산군에서 중소형발전소를 건설하여 그 덕을 크게 보고있다. 연산군민발전소가 조업하여 5년남짓한 기간에 수천만kWh에 달하는 많은 전력이 생산되였다.

생산된 전력은 농업생산을 늘이고 지방공업을 발전시키며 군내주민들의 문화정서생활을 보장하는데 적극 리용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물이 흐르는 모든 곳에 중소형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도 계속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중소형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전군중적운동으로 벌릴데 대한 당정책관철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군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일떠선 연산군민발전소는 경제적실리가 큰 저락차발전소이다.

남강발전소의 전력생산에 리용된 물을 받아 전력을 생산하므로 특별한 경우를 내놓고는 사계절 전력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안전하게 진행할수 있다. 또한 수문과 발전기실이 언제역할까지 수행하므로 경제적효과성이 매우 높다.

몇해전 군당위원회에서는 긴장한 전력문제를 자체로 푸는것을 최우선과제로 정하고 중소형발전소를 건설할데 대한 당정책관철에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불러일으키였다. 수백명의 청년들로 돌격대가 무어진 가운데 당, 행정책임일군들은 부족한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발전소건설에 군적인 력량을 집중하면서 대담하고 통이 크게 일판을 전개하였다. 돌격대원들과 군내인민들은 일터마다에서 자력갱생의 위력을 높이 떨치며 기초굴착과 콩크리트치기, 발전기실건설을 비롯한 방대한 공사량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다.

결과 독특한 형식의 수천kW의 발전능력을 가진 중소형발전소가 일떠섰다. 그때부터 국가전력공급계통을 차단한 군에서는 자체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의 덕을 크게 보고있다.

지방산업공장들을 만부하로 돌리고있다. 전기걱정없이 지방산업공장들의 기술개건을 다그쳐 종전의 모습을 찾아볼수 없게 변모된 수십개의 생산단위들이 해마다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이 과정에 된장, 간장을 비롯한 여러가지 기초식품생산이 지난 시기에 비하여 크게 늘어나고 비누, 학습장, 건재류 등의 생산이 높아져 군내주민들의 생활향상에 이바지되였다.

군에서는 중소형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로 양수동력을 충분히 보장하고 농기계수리기지들을 만부하로 돌려 농업생산을 늘이고있으며 탈곡에 필요한 전력까지 자체로 보장하고있다.

모든 농촌리들을 포함한 군내주민들의 문화정서생활조건보장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조명용전기보장은 물론 전기로 밥을 짓고 읍소재지에는 불야경까지 펼쳐놓았다. 전기문제를 풀어 덕을 보고있는 군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기가 사는 고장을 사회주의무릉도원으로 꾸려갈 단계별목표수행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나날이 흥해지고있는 연산군의 벅찬 현실은 중소형발전소를 대대적으로 건설할데 대한 당정책의 정당성을 힘있게 과시하고있다.

본사기자 전성삼

농사에 모든 힘을 총집중하자

영광의 포전에서 모내기 시작

평원군 원화협동농장에서

영광의 땅 평원군 원화협동농장에서 모내기가 시작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관철에 한결같이 떨쳐나선 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벼모키우기와 논갈이, 써레치기를 비롯한 영농공정별에 따르는 농사일을 알심있게 하며 모내기준비를 착실히 갖추고 매일 모내기실적을 높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내기는 한해농사를 좌우하는 중요한 영농공정입니다.》

지금으로부터 62년전 5월 10일, 준엄한 전화의 그날 포연을 헤치시고 이곳을 찾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몸소 농민들과 함께 농산제1작업반 포전에서 풍년씨앗을 뿌리시였다.

뜻깊은 이날을 맞으며 농업성과 평안남도당위원회, 도농촌경리위원회, 군안의 책임일군들, 해당 부문 일군들이 원화협동농장을 찾아 첫모를 내는 농장원들과 함께 모내기를 하였다.

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의 얼굴마다에는 올해 자기들앞에 맡겨진 알곡고지를 점령하고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의 보고를 드릴 불같은 맹세가 어려있었다.

모내는기계들이 고르로운 동음을 울리며 논판에 들어서자 경제선동의 북소리, 나팔소리가 높이 울리였다.

협동농장에 나온 모든 일군들도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원화땅에 어려있는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기며 한포기, 한포기 정성을 다해 모를 냈다.

뜻깊은 이날을 위해 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하나같이 실한 모들을 키워내기 위하여 애써 노력하였다.

작업반, 분조들에서는 농장원들이 과학기술학습을 실속있게 진행하여 누구나 자기 맡은 일에 정통하고 벼랭상모판만들기와 씨뿌리기, 모기르기 등 영농공정들에서 과학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였다. 특히 대용비료를 적극 리용하기 위한 높은 목표를 세우고 질좋은 유기질비료를 충분히 마련하여 포전들에 내도록 하였다.

농산제1, 2, 3, 4작업반을 비롯한 협동농장의 작업반, 분조들에서도 한해농사에서 모내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끝내는것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명심하고 모내기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고 모내기에 들어갔다.

뜻깊은 올해를 알곡증산으로 빛내일 드높은 열의를 안고 떨쳐나선 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애국의 마음에 의하여 원화벌은 시간이 흐를수록 푸르러지고있다.

특파기자 리혁철

강냉이심기가 끝났다

평안북도의 농촌들에서

평안북도의 농촌들에서 강냉이심기를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도안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지금 도의 전면적에 강냉이심기를 성과적으로 끝낸 기세를 늦추지 않고 가물과의 투쟁을 힘있게 벌리면서 강냉이비배관리를 깐지게 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부문에서는 사회주의농촌테제발표 5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농사를 잘 지어 당과 국가가 제시한 알곡생산과제를 기어이 수행하여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올해 알곡생산과제를 기어이 수행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도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강냉이심기를 적기에 질적으로 끝내도록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였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강냉이심기계획을 면밀히 세운데 기초하여 도의 시, 군들에 일군들을 내보내여 기술지도를 실속있게 짜고들도록 하였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시,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들에서는 모든 협동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이 강냉이심기에서 주체농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도록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이 해나갔다.

강냉이밭면적이 많은 삭주군에서는 지난해 강냉이농사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에 기초하여 거름과 소석회를 많이 내고 영양단지준비를 선행시켜 강냉이심기를 적기에 질적으로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운전군과 정주시, 박천군과 선천군, 곽산군을 비롯한 해안연선의 시, 군의 협동농장들에서도 힘찬 투쟁을 벌려 빠른 시일에 강냉이심기를 전부 끝냈다.

강냉이심기를 끝낸 도안의 협동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정보당 소출을 높이기 위해 가물로 하여 생긴 빈포기가 없는가를 따져보며 밭관수와 물주기 등 강냉이비배관리를 책임적으로 잘해나가고있다.

올해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할 열의에 넘쳐있는 도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 포전마다에서는 강냉이포기들이 키돋움하며 푸르싱싱 자라고있다.

특파기자 송창윤

감자심기에서 일대 혁신

량강도의 감자산지들에서

량강도의 감자산지들에서 감자심기가 한창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와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서한에 제시된 과업관철에 떨쳐나선 도안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올해 감자농사에서 통장훈을 부를 만만한 배심을 안고 감자심기에 총력량을 집중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부문에서는 과학적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농사일을 책임적으로 하여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해 11월 삼지연군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면서 삼지연군, 대홍단군, 백암군이 감자농사경쟁을 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도당위원회에서는 올해 감자 정보당 수확고를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투쟁에로 도안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에서는 삼지연군을 올해 감자농사의 본보기단위로 정하고 력량과 수단을 총집중하여 수백정보의 면적에 흙깔이를 진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삼지연군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자욱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중흥농장 제1작업반에서 군적인 보여주기를 진행하여 대홍단식과학농법을 구현하는데서 나서는 기술적요구를 농업근로자들속에 깊이 인식시켰다.

군농업경영위원회 일군들이 운전수들과 함께 뜨락또르를 타고 포전을 누비며 평당 포기수보장과 감자묻어주기를 정확히 하도록 기술적지도를 실속있게 하였다.

농장들에서는 군의 특성에 맞게 감자종자를 옳게 선정하고 종합적인 기계수단을 적극 리용하여 감자심기를 끝내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백암군에서도 감자심기가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군에서는 감자심기를 일정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농지도를 짜고들고있다. 백암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농촌자재상사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영농시기에 절실히 필요한 비료, 연유 등 영농물자보장사업에 힘을 넣어 감자심기를 믿음직하게 뒤받침하고있다.

옥천, 천수, 은덕지구 농장들을 비롯하여 군의 모든 농장들에서 감자심기에 로력과 기계수단을 총집중하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농근맹위원회에서는 군별, 농장별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여 감자심기에 떨쳐나선 농업근로자들의 열의를 높여주고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전철주

문학예술혁명의 포성을 세차게 울리시여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전투장들마다에서 진격의 포성,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려가는 문학예술부문의 미더운 창작가, 예술인들의 대회합으로 뜻깊게 기록될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소식에 접한 천만군민의 가슴은 지금 세찬 격정으로 끓어번지고있다.

혁명적인 사상공세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어나고있는 시기에 맞게 우리의 문학예술부문에서 새로운 혁명의 불길을 지펴올려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는것이 바로 우리 당의 의도이다.

문학예술혁명, 불러볼수록 심장은 세차게 높뛴다. 이 말과 더불어 우리의 문학예술은 항일의 불길속에서 마련된 주체적문학예술의 위대한 전통을 이어 20세기의 문예부흥이라는 세계를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이 말과 함께 오늘 우리의 문학예술은 온 사회에 신심과 활력을 북돋아주며 새로운 발전의 길에 들어서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도 사상전의 포성을 울리며 천만군민을 최후승리에로 힘있게 추동하는 혁명적문학예술의 위력을 절감할수록 1970년대 위대한 장군님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주체문학예술의 대전성기가 펼쳐지던 력사의 나날이 격정속에 안겨온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지난 1970년대에 우리의 문학예술은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섰습니다.》

우리 장군님께서 문학예술부문의 사업을 직접 맡아 지도하시게 된데는 참으로 깊은 사연이 깃들어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지 몇달 안되던 어느날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문예부문 사업을 혁신할데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털어놓고 말해서 자신께서는 문학예술사업때문에 늘 마음쓰고있다고, 이 부문사업만 추켜세워놓으면 한시름 놓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언제나 어버이수령님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수령님께 기쁨과 만족만을 드리는것을 혁명전사의 가장 숭고한 의무로, 최대의 행복으로 여기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때에도 수령님께서 바라신다면 힘껏 해보겠다고, 문학예술부문을 꼭 추켜세워 수령님의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문학예술부문사업은 걸출한 위인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자기 발전의 새로운 길을 걷게 되였다.

문학예술부문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킬 웅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문학예술의 구체적인 실태와 세계문학예술발전의 추이, 선행문예리론과 인류가 남긴 진보적문화유산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신 위대한 장군님께 있어서 하루하루는 결코 평범한 나날이 아니였다. 말그대로 불면불휴의 나날이였다.

문예부문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지도를 시작하신지 1년 남짓한 세월이 흐른 주체54(1965)년 12월 어느날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시대의 요구에 맞는 문학예술에 대한 새로운 혁명적인 사상과 리론을 내놓고 그것을 창작실천에 훌륭하게 구현하여야 한다고, 그래야 우리의 문학예술이 시대의 요구에 맞게 혁명적으로 발전할수 있으며 세계적인 문학예술발전에 혁명적영향을 줄수 있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문학예술혁명은 어느 한 예술형태에 국한시킬것이 아니라 모든 문학예술형태에서 다 일으켜야 한다. 우리는 영화와 가극, 연극을 비롯한 문학예술의 모든 형태에서 혁명을 일으켜 세계에 대고 장훈을 불러야 한다. …

위대한 장군님께서 구상하신 문학예술혁명,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문학예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는데만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였다. 사회주의문학예술의 가장 과학적인 진로를 밝혀주고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형성에 참답게 이바지하며 우리 시대 인민들의 현대적미감에 맞는 혁명적문학예술의 세계적인 본보기를 창조함으로써 인류문학예술을 새롭게 부흥시키자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문학예술혁명은 내용과 형식, 창조체계와 창조방법의 모든 령역에서 낡은것을 뒤집어엎고 새로운 주체의 문학예술을 건설하기 위한 사상문화분야에서의 심각한 계급투쟁이라는것을 밝혀주시였다. 이 고전적정식화는 문학예술혁명의 총적목표와 방향을 명시해준 불멸의 기치였다.

영화혁명을 문학예술혁명의 중심고리로 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영화혁명으로부터 문학예술혁명의 돌파구를 열어나갈것을 구상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예술영화 《성장의 길에서》창조로 시작된 영화혁명은 그후 가극혁명, 연극혁명으로 그 불길이 세차게 타번져 이 땅우에는 문학예술혁명의 격동적인 시기가 펼쳐지게 되였다.

《피바다》, 《꽃파는 처녀》, 《한 자위단원의 운명》과 같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예술영화와 가극, 연극무대에 훌륭히 옮기시기 위하여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심혈과 로고는 그 얼마였던가.

그이께서 가극혁명을 일으키시던 나날에 있은 일이다.

어느날 밤 11시경에 혁명가극 《피바다》를 지도하시기 위해 현지에 나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새벽 3시가 넘도록 가극을 지도해주시였다. 무대련습이 끝났을 때에야 그이께서 아직 저녁식사도 못하셨다는것을 알게 된 창작가들은 송구스러움을 금치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죄송해하는 창작가들을 바라보시며 혁명을 하느라면 끼니를 번질 때도 있고 밤잠을 못 잘 때도 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를 가극으로 옮기는 영광스러운 사업에서 한두끼를 건는들 뭐라는가, 어서 노래나 들으면서 가극을 완성할 형상방도를 마저 토론하자고 하시였다. 시계가 아침 6시를 알릴 때에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새날이 밝아왔음을 느끼시고 창문을 활짝 열어제끼시였다.

아침노을이 불타는 장쾌한 광경을 깊은 생각에 잠겨 한동안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먼 후날 이런 아침도 력사의 한페지를 빛내일것이라고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이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문학예술혁명을 지도하시던 나날에 있었던 하많은 잊지 못할 이야기들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때로는 어느 한 혁명가극에 나오는 수많은 노래들의 선률을 몸소 찾아주기도 하시고 수천편에 달하는 가사와 악보들을 밤새워 보아주시였으며 또 언제인가는 직접 펜을 드시고 가극의 주제가를 창작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이렇듯 지칠줄 모르는 사색, 불과 몇소절밖에 되지 않는 음악을 완성시켜주시려 때식도 건느시며 12시간동안이나 지도하여주신 우리 장군님의 불같은 열정…

언제나 맞받아나가는 공격전술로 혁명과 건설을 령도해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지칠줄 모르는 령도의 손길아래 문학예술부문에서는 주체조선의 고귀한 문화적재보가 수많이 태여났다.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영화로 옮긴 예술영화들인 《꽃파는 처녀》, 《피바다》, 《한 자위단원의 운명》과 혁명영화들인 《누리에 붙는 불》, 《사령부를 멀리 떠나서》, 총서형식의 수령형상문학작품들, 5대혁명가극들인 《피바다》, 《꽃파는 처녀》, 《밀림아 이야기하라》, 《당의 참된 딸》, 《금강산의 노래》와 《성황당》을 비롯한 5대혁명연극들, 《눈이 내린다》, 《조국의 진달래》와 같은 4대무용명작들, 관현악 《청산벌에 풍년이 왔네》, 《문경고개》, 우수한 교예작품들…

언제인가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밑에 우리 혁명이 새로운 앙양기를 맞이한데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문학예술부문에서는 1970년대초의 몇해어간에 주체문학예술의 일대 전성기가 펼쳐졌다고, 이 기간에 영화예술을 비롯한 문학예술의 여러 부문들에서 놀라운 발전이 이루어지고 세계적인 명작들이 련이어 창작되여 세상에 나왔으며 그 과정에 문학예술인들의 대오는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에서 앞장서 나가는 선구자의 대오로 되였다고,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 《문학예술혁명》, 《20세기 문예부흥》이라고 하였는데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참으로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1970년대의 문학예술혁명은 전당, 전민을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와 새로운 사회주의대건설에로 힘있게 추동하는 위력한 사상적무기였고 총진군의 드세찬 포성으로 되였다. 예술인들이 화려한 무대를 떠나 들끓는 전투현장들에 나가 진행하는 힘있는 예술선동속에 금골을 비롯한 조국땅 곳곳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이 창조되였다.

광범한 군중이 예술활동에 참가하는 군중예술활동속에 로동자예술축전, 대학생예술축전, 학생소년예술축전을 비롯한 예술축전들도 성대히 진행되게 되였다.

정녕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밑에 일어난 문학예술혁명은 주체적문학예술의 대전성기를 마련한 20세기 문예부흥의 자랑찬 승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문학예술사업을 령도하시는 나날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집대성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영화예술론》, 《가극예술에 대하여》 등은 오늘도 주체문학예술발전의 강령적지침으로 되고있다.

1970년대 문학예술혁명의 포성이 높이 울리던 그날로부터 준엄하고도 시련에 찬 지난 고난의 나날과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오늘의 보람찬 투쟁의 나날에도 우리 인민이 력사의 기적을 떨치게 한 중요한 원동력의 하나는 바로 이러한 혁명적인 문학예술의 무궁무진한 힘이였다. 국보적가치를 가지는 수많은 문예작품들이 우리의 문학예술발전사의 갈피들을 아름답게 장식하였으며 시대와 혁명투쟁을 힘있게 떠밀어왔다.

우리의 주체문학예술이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선도하는 사상적무기로서의 사명을 다하자면 다시한번 1970년대와 같은 문학예술혁명의 포성을 높이 울려야 한다.

모란봉악단의 혁명적인 창조정신과 투쟁기풍을 본받아 새로운 문학예술혁명의 포성을 높이 울리고 사상의 미싸일들을 련속 발사할 때 우리 당사상사업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라시는대로 위대한 전환이 일어나고 최후승리는 앞당겨지게 될것이다.

또 한분의 문학예술의 걸출한 영재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고 위대한 령도자, 위대한 스승의 슬하에서 글을 배우고 재능을 키운 창작가, 예술인들의 대부대가 있어 선군혁명문학예술의 앞길은 창창하다.

본사기자 백 영 미

사연깊은 저금통장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마음속에는 언제 어디서나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이 소중히 자리잡고있었습니다.》

문학예술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던 주체61(1972)년 4월 어느날이였다.

새로 만든 영화의 작업필림을 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문득 옆에 앉아있는 조선영화문학창작사의 한 책임일군에게 창작사건설에 동원된 작가들과 돌격대원들이 일을 많이 한다는데 그들에게 간식이랑 제대로 공급되고있는가고 물으시였다.

뜻밖의 물으심에 일군은 선뜻 대답을 드릴수 없었다. 창작사건설을 발기하시고 건설력량과 자재, 설비들까지 몸소 해결해주시며 건설이 최상의 수준에서 진행되도록 마음쓰시는것만도 가슴뜨거운데 작가들과 돌격대원들의 간식문제에 대하여서까지 알아보시니 그이를 우러르며 일군은 눈굽이 뜨거워져 한동안 대답을 드릴수 없었다. 일군은 마음을 다잡고 간식량이 좀 적어졌다고 사실대로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늘 아침 알아보니 지난밤에도 그들이 새벽까지 큰 토량공사를 해제꼈다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간식을 제대로 주어야 하겠다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잠시 무엇인가 생각하시더니 자신의 저금통장에 저금한 생활비가 얼마나 있는가 알아보고 그것을 찾아다가 쓰도록 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아니, 자신께서 쓰셔야 할 생활비를 돌려주시다니?…)

자그마한 특전도 허용하지 않으시는 우리 장군님께서는 여느 일군들과 똑같은 생활비를 받으시며 검박하게 생활하시였다. 하지만 장군님께서는 요긴하게 쓰셔야 할 생활비까지도 창작사건설에 동원된 작가들과 돌격대원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돌려주시는것이였다.

그이께서 보내주신 사연깊은 생활비를 어떻게 천만금의 재부에 비길수 있으랴.

그날밤 건설장에서 사랑의 간식봉지를 받아안은 작가들과 돌격대원들은 차마 그것을 입에 대지 못하고 뜨거운 눈물만 삼키였다.

그날부터 건설장에서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이 안아온 기적이였다.

그러나 우리 장군님의 사랑과 은정은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었다.

며칠후였다. 창작사의 책임일군은 당중앙위원회의 해당 부서로 오라는 련락을 받게 되였다.

건설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가 제기된것이라고만 생각하고 급히 달려간 그는 뜻밖에도 한 일군이 내놓는 저금통장과 보자기에 싼 현금을 마주하게 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저희들이 저금통장에 있는 금액의 절반만 찾아다준것을 아시고는 몹시 나무람하시면서 다 찾아다주라고 다시 이르시였습니다.

동무들! 동무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창작사의 책임일군은 떨리는 두손으로 저금통장을 펼쳐들었다. 그것은 빈 저금통장이였다.

돌이켜보면 인류력사에는 위인들도 적지 않았고 인민을 위한다는 정치가들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위인, 어느 지도자가 작가들의 창작실을 꾸려주기 위하여 자신이 직접 시공주가 되여 세간난 자식의 집을 지어주듯 그렇듯 세심히 보살펴준적 있었으며 더우기 그들을 위하여 생활비마저 고스란히 돌려준적 있었던가.

문학예술혁명을 구상하시고 정력적으로 지도하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창작가, 예술인들의 생활에 제일먼저 관심을 돌리시며 그들을 위하여 주실수 있는 모든 사랑과 은정을 다 돌려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진정이 그 저금통장에 비껴있었다.

창작사의 책임일군만이 아닌 작가들과 돌격대원들모두가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사연깊은 보자기를 쓸어보고 또 쓸어보며 이렇게 마음속으로 웨쳤다.

(혁명전사들을 위하시는 그이의 뜨겁고도 위대한 사랑과 믿음의 세계의 시작과 끝은 과연 어디인가! 그이의 높은 뜻을 더 높은 창작적성과로 받들어가리라.)

이것이 바로 문학예술부문의 모든 창작가, 예술인들이 수십년세월이 흐른 오늘까지도 잊지 못하는 위대한 장군님의 저금통장에 대한 이야기이다.

본사기자

혁명의 북소리 높이 울리던 나날에

새로운 창조원칙

주체60(1971)년 6월 어느날 몇몇 일군들을 부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를 그대로 무대에 옮겨 혁명가극을 창조할데 대한 영예로운 과업을 주시였다.

기본은 작곡을 선행시키는 문제라고 강조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은 인민적인 토대우에서 현대화된 완전히 새로운 형식의 혁명가극의 본보기를 만들려고 한다고, 이 가극은 종래의 가극과는 달리 절가와 방창을 기본형상수단으로 하는 음악극작술적 제원칙을 가져야 한다는데 대하여 하나하나 밝히시였다.

대화창을 위주로 하는 종래의 낡은 형식을 없애고 절가화된 노래, 절가화된 방창, 절가형식에 기초한 관현악 등으로 극을 엮어나가며 작품의 주제사상적내용을 밝히는것으로서 아직 가극창조력사에 있어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창조원칙은 이렇게 세상에 태여나게 되였다.

영원히 당과 함께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어느날 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 연출가가 지난날 반동분자들과 의식적으로 결탁하였다는 자료를 받게 되시였다.

그 연출가로 말하면 량심적이고 고지식하며 예술밖에 모르는 사람이였다. 이미전부터 그의 사람됨에 대하여 알고계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료보다도 그의 예술가적정의감과 혁명적량심을 굳게 믿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 일군에게 이 동무에 대한 자료는 이미 다 알고있다고 하시면서 그가 우리를 찾아올 때 품었던 그 뜻을 꼭 실현하도록 적극 도와주어 영원히 당과 함께 혁명의 한길을 걸어가도록 할데 대하여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절세의 위인의 열화같은 믿음과 사랑속에 그후 연출가는 예술영화 《꽃파는 처녀》를 비롯하여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영화들을 수많이 창작하였다.

새벽에 걸어오신 전화

위대한 장군님께서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창조사업을 지도하시던 나날에 있은 일이다.

어느날 이른새벽 창작가들은 뜻밖에 그이께서 걸어오신 전화를 받게 되였다.

창작가들의 놀라움은 참으로 컸다. 가극창조사업을 지도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금전에 그곳을 떠나시였던것이다. 쌓이신 피로가 크시련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느 한 대목에 나오는 녀성방창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부르는 노래의 가사를 고칠데 대하여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

가사의 어휘 하나를 두시고 이른새벽까지 깊이 마음쓰시는 우리 장군님의 헌신의 세계에 창작가들의 가슴은 뜨겁게 젖어들었다.

우리 인민들뿐아니라 세계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진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의 한편한편의 노래는 이렇게 완성되였다.

본사기자 리 금 분

민족음악발전과 주체음악예술

매개 민족은 자기의 고유한 전통적인 음악을 가지고있다. 민족생활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반영하면서 력사적으로 형성되고 계승발전되여온 민족음악은 매개 나라의 음악예술에서 기본을 이룬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민족의 슬기와 넋이 깃들어있는 귀중한 문화적재부이며 우리 음악예술의 찬란한 개화발전의 바탕으로 되는 민족음악을 적극 장려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민족음악은 민족의 슬기와 넋이 깃들어있는 귀중한 문화적재보이며 사회주의음악예술의 찬란한 개화발전을 위한 바탕이다. 우리의 민족음악은 우아하고 소박하며 아름답고 굴곡이 심하지 않은 고유한 특색을 가지고있다. 민족적선률을 바탕으로 하여 음악을 창작하는것은 주체음악예술건설에서 우리 당이 확고히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이다. 우리의 음악예술이 대중의 열렬한 공감을 받고 그들의 정신력을 불러일으키는 위력한 사상적무기로서의 사명을 다하자면 민족의 넋과 정서를 토양으로 하여 발전하여야 한다.

민족음악을 장려하고 발전시키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구현해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민족음악을 적극 장려하고 발전시켜나가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의 부르죠아사상문화침투책동이 그 어느때보다도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는 오늘 첨예한 사회적, 정치적문제로 나서고있다. 구체적이고 개성적인 자기 민족의 특성을 떠나 제국주의자들이 퍼뜨리는 썩어빠진 날라리음악에 귀를 기울이고 그 장단에 춤을 추는것이야말로 주체성과 민족성을 상실한 머저리짓이다. 그런 사람들은 제정신을 가지고 사고하고 행동할수 없으며 자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참답게 복무할수도 없다. 인민에게 가장 친숙한 예술의 한 형태로서 인민의 사상감정을 반영할뿐아니라 힘있게 선도하는 음악예술에서부터 주체를 세워야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침투책동을 철저히 분쇄하고 혁명과 건설을 자주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다.

민족음악을 발전시키는것은 민족의 우수한 문화와 전통을 지키고 더욱 빛내이며 우리 인민을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으로 교양하기 위한 숭고한 애국사업이다.

예로부터 남달리 음악을 사랑하고 고상하고 아름다운 정서를 가꾸며 계승하여온 우리 민족은 세상에 널리 자랑할만 한 민족음악유산들을 수많이 창조하여왔다. 수백년전부터 전해져오면서 오늘까지도 우리 인민들속에서 널리 불리우고있는 《아리랑》이나 《도라지》와 같은 민요들, 가요 《오직 한마음》, 《끝없는 이 행복 노래부르네》, 《먼저 찾아요》, 《군민아리랑》, 《바다 만풍가》와 같이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이 민족적선률과 양상으로 훌륭히 형상된 노래들은 우리 인민 누구나 사랑하고 즐겨부르는 명곡들로 되여 우리 수령, 우리 제도, 우리 민족이 제일이라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한껏 북돋아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장군님께서는 일찌기 민족음악을 위주로 하여 우리 음악예술을 발전시킬데 대한 주체음악예술건설방침을 내놓으시고 일관하게 견지하여오시였다. 그리고 민족음악을 발전시키는데서 현대성의 원칙과 력사주의적원칙을 철저히 고수할데 대한 문제, 민족악기들을 현대적으로 개량할데 대한 문제, 편곡과 연주에서 우리 식을 살릴데 대한 문제, 민족음악을 널리 소개선전할데 대한 문제 등 민족음악창작과 보급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명철하게 밝혀주시고 걸음걸음 이끌어주시였다.

음악예술부문의 모든 창작가, 예술인들은 민족음악을 적극 장려하고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주체음악예술건설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시대와 력사앞에 지닌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가야 할것이다.

리 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나미비아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당대표단을 만났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는 12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의례방문하여온 낭골로 음붐바총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나미비아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당대표단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박근광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석상에서 총비서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나미비아인민의 투쟁에 변함없는 지지와 련대성을 보내주시고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를 발전시켜나가도록 하여주신데 대하여 숭고한 경의를 표한다고 말하였다.**

대표단이 두 당,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키기 위해 조선을 방문하였다고 하면서 그는 나미비아공화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동지적인 련대성을 귀중히 여기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경제발전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의 성과와 조선의 통일이 하루빨리 이룩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에게 스위스련방 특명전권대사 신임장 봉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에게 쟝-쟈끄 드 다르델 주조스위스련방 특명전권대사가 12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여기에는 궁석웅 외무성 부상, 관계부문 일군들과 주조 스위스련방 외무성협조사무소, 스위스련방대사관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김영남동지는 신임장을 받은 다음 대사와 담화를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김정일애국주의는 영웅적위훈창조의 원동력

오늘 **김정일**애국주의는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올해의 총진군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높이 발휘하여야 할 정신력의 근본핵으로, 기적과 위훈창조의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정일애국주의를 체질화하고 실천에 철저히 구현하여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조국을 일떠세우는 보람찬 투쟁에서 영웅적위훈의 창조자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김정일애국주의는 우리의 사회주의조국과 우리 인민에 대한 가장 뜨겁고 열렬한 사랑이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가장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헌신이다. 내 나라, 내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까지도 다 자기 가슴에 품어안고 자기의 더운 피로 뜨겁게 덥혀주는 참다운 애국주의이라는 바로 여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간직하고 구현하여오신 애국주의의 숭고성이 있다.

애국은 모든 사람들이 지녀야 할 더없이 소중한 사상감정이다. 애국속에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 대한 충실성이 있고 삶의 가치와 보람이 있다. 누구든지 이 땅에 태를 묻은 사람이라면 순간을 살아도 한생을 살아도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정신으로 심장을 불태워야 한다. 그 어떤 시련과 난관앞에서도 주저하거나 동요하지 않고 애국의 한길을 변함없이 걷는 사람, 당이 맡겨준 혁명과업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결사관철하는 실천가가 바로 **김정일**애국주의의 참다운 체현자이다.

그러면 **김정일**애국주의가 왜 영웅적위훈창조의 원동력으로 되는가.

—그것은 우선 **김정일**애국주의가 한생을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헌신으로 빛내여나갈수 있게 하는 삶과 투쟁의 귀중한 교과서이기때문이다.

영웅적위훈은 애국심의 집중적인 발현이다. 조국과 인민, 후대들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지니고 삶의 순간순간을 애국적헌신성으로 이어나가는 사람만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값높은 위훈을 세울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한평생은 이 세상 그 어느 위인도 따를수 없는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으로 수놓아져있다. 어버이장군님께서 혁명생애의 전기간 끊임없이 이어가신 현지지도로정은 167만 4 610여리이며 찾으신 단위는 무려 1만 4 290여개에 달한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위대한 장군님의 이 불멸의 대장정은 그대로 불같은 애국헌신의 련속이였다. 선군혁명령도의 길에서 울창한 수림과 번듯하게 정리된 드넓은 대지를 보시면 부강번영할 조국의 래일과 대대손손 누려갈 우리 인민의 행복한 앞날을 그려보시며 정을 담아 푸른 산, 푸른 들이라고 조용히 외우신분이 어버이장군님이시였다. 외국방문의 길에 계실 때에는 두고온 조국과 인민들이 그리워 내 나라, 내 민족이라고 감회깊이 불러보군 하신 우리 장군님이시야말로 가장 위대한 애국애족의 화신이시였다. 현지지도의 길에서 비물에 땅이 패인것을 보시고 그것이 너무도 가슴아프시여 몸소 메꾸신 위대한 장군님의 열화같은 애국의 세계는 오늘도 우리 인민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신 우리 장군님이시기에 조국의 륭성번영과 후대들의 행복을 위한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다 바치신것이다.

김정일애국주의는 오늘날 우리가 조국과 인민을 어떻게 사랑하여야 하고 우리 삶의 순간순간이 어떻게 이어져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고귀한 정신적량식이다. 위대한 장군님처럼 조국과 인민, 혁명의 미래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칠 애국의 열정으로 언제나 심장을 끓일 때 누구나 영웅적위훈의 창조자가 될수 있다.

—그것은 또한 **김정일**애국주의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끝없는 용기와 활력을 부어주는 자양분으로 되기때문이다.

애국은 곧 조국에 대한 헌신이고 투신이다. 애국심이 높은 사람은 말보다 실천을 앞세우며 성과에 자만과 만족을 모르고 조국과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하여 분발하고 또 분발한다. 열렬한 애국심은 영웅적위훈창조의 포부와 열정, 기개와 담력을 백배해주는 거세찬 밑불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걸으신 애국의 길은 강의한 신념과 의지의 길이였다. 결사의 각오와 영웅적희생정신, 무비의 담력과 배짱,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헌신으로 수놓아진 그 길에서 눈보라강행군, 삼복철강행군이라는 새로운 시대어가 태여났고 쪽잠과 줴기밥에 대한 혁명일화도 태여났다. 미끄러져내리는 차체에 어깨를 들이대시고 오성산의 칼벼랑길을 한치 또 한치 오르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희생적인 선군령도사가 이 땅 그 어디에나 뜨겁게 깃들어있다. 10여년나마 입으신 단벌솜옷으로 스며드는 추위보다도 조국수호의 사명감으로 심장을 불태워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로고가 있어 우리 조국은 정치군사강국,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 핵보유국으로 전변될수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심장속에 굳게 자리잡은 애국주의의 밑바탕에는 바로 조국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우리의 사상과 위업에 대한 필승의 신념이 굳게 자리잡고있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서는 단 한걸음의 주저와 동요를 모르고 오직 앞으로만 내달려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의 정신, 애국의 기상은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정신력의 근본원천으로 되고있다. 우리는 **김정일**애국주의를 삶과 투쟁의 귀감으로 삼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바쳤는가라는 물음에 자신을 늘 비추어보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한몸 서슴없이 내대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의 의지를 심장으로 간직하고 살며 투쟁하는 사람에게는 靠지 못할 난관, 점령 못할 요새가 있을수 없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김정일**애국주의를 체질화하고 영웅적위훈으로 삶을 빛내여나감으로써 위대한 장군님의 한평생의 념원을 이 땅우에 자랑찬 현실로 펼쳐놓아야 할것이다.

김 경 숙

1970년대와 같은 약동하는 기상이 차넘치는 청산벌

혁신의 불바람을 일으킨 사상전의 포성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일군이건 행정경제일군이건 초급일군이건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는것을 기본열쇠로 틀어쥐고 여기에 응당한 힘을 넣어야 합니다.》

당이 제시한 올해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할 불타는 결의를 안고 모내기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강서구역 3중3대혁명붉은기 청산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드높은 열의로 하여 청산벌은 세차게 끓고있다.

1970년대와 같은 약동하는 기상이 차넘치는 청산벌은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사상전의 포성을 높이 울릴 때 새로운 혁신이 일어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전투전에 시작된 사상공세작전

《사실 우리 농장의 모내기전투는 이미전부터 시작된셈이였습니다.》

관리위원장 윤춘화동무가 한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여러 일군들과 농장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잘 알게 되였다. 사실이 그랬다. 농장의 모내기전투작전계획은 이미 몇달전부터 세워져있었다. 그 첫 조항이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사업이였다.

—대중의 심장에 먼저 불을 지피자.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를 들이댈 때 승리는 확정적이다.

모내기전투시작에 앞서 이곳 일군들은 이렇게 결심하였다. 그때 일군들이 한자리에 모여 작성한 작전계획은 그대로 리당위원회의 결정으로 채택되였다.

결정은 곧 실천의 불길로 타올랐다.

모내기철까지는 아직도 수십일이 남아있던 그때 이곳 일군들과 농장원들속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력사적인 서한을 놓고 문답식학습경연이 활발히 진행되고있었다. 뜻깊은 올해에 농사를 잘 지어 당과 국가가 제시한 알곡생산과제를 기어이 수행할데 대한 서한의 구절구절을 새길수록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가슴마다에서는 새로운 결의가 끓어넘쳤다.

분조별로 진행된 예술소품경연도 사람들의 심장을 틀어잡았다. 청산리에 깃든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있게 형상한 예술소품경연은 일군들과 농장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예술소품경연을 보고난 사람들 누구나가 이번 모내기를 적기에 질적으로 끝냄으로써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더욱 빛내일 결심을 가다듬었다.

일군들은 이와 함께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 참가자인 제1작업반 4분조 선동원을 출연시켜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모든 선동원, 5호담당선전원, 학습강사, 강연강사들이 잘 알고 정치사업을 공세적으로, 화선식으로 벌리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밀고나갔다. 그리하여 리당위원회, 관리위원회, 근로단체일군들은 물론 모든 초급일군들이 농장원들속에 들어가 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려나가게 되였다.

전례없던 이런 사업은 농장원들이 모내기준비에서 새로운 혁신을 창조하게 하였다. 모판관리공모두가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에서도 앞선 모기르기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모를 튼튼히 키워냈다. 기계화작업반원들은 짧은 기간에 뜨락또르들과 모내는기계들에 대한 수리정비를 끝내고 자체의 힘으로 농기계들을 만들어 마른논써레치기와 논두둑짓기실적을 올리였다.

전투전에 시작된 사상공세작전은 이처럼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의 위력을 과시하여 모내기를 적기에 질적으로 끝낼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모두가 선전원, 선동원이 되여

만단의 전투준비를 갖추고 공격명령을 기다리고있던 농장의 모든 력량이 모내기전투장으로 집중되였다. 참으로 볼만 한 화폭이 온 청산벌에 펼쳐졌다.

일군들의 화선식정치사업이 농장원들의 심장을 세차게 두드렸다.

리당위원회, 관리위원회, 근로단체일군들이 선전원, 선동원이 되여 맡은 작업반, 분조들에 달려나갔다. 포전들에 전개된 방송선전차와 50여개의 포전방송기재들이 일제히 사상전의 포문을 열고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의 위력을 과시하였다. 농장기동예술선동대의 힘있는 경제선동의 북소리가 온 청산벌을 들었다놓았다.

붉은기들이 세차게 나붓기고 백수십개의 크고작은 속보판들에 혁신의 새 소식들이 시간마다 나붙었다. 말그대로 청산벌은 심장을 펄펄 끓게 하는 전투장으로 되였다.

일군들은 작업반을 맡고 내려가 신발에 흙을 묻히며 전투를 지휘하면서 모내기전투에 한몸을 내대였다. 협의회도 포전에서, 전투조직과 총화도 포전에서 진행하였다.

농장일군들과 작업반초급일군들의 이신작칙은 농장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말없는 정치사업으로 되였다. 포전에서 새벽을 남먼저 맞는 사람도, 어려운 일에 한몸을 선참으로 내대는 사람도, 새벌을 이고 퇴근길에 오르는 사람도 이들이였다.

그 어느 작업반에 가보아도 낮에는 포전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운전수들과 함께 뜨락또르를 타고 써레질을 하는 일군들에 대한 자랑을 들을수 있다. 후방사업은 사회주의수호전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왼심을 쓰며 뛴 일군들과 초급일군들에 대한 이야기도 끝이 없다.

모두가 선전원, 선동원이 되여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를 들이대면서 몸을 아끼지 않고 내대는 일군들과 초급일군들의 투쟁은 대중의 심장을 세차게 격동시키며 모내기실적을 높여가게 하고있다.

본사기자 윤용호

과학농사의 기수가 되여

청년작업반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하여서는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야 합니다.》

영양단지모, 영양알모들이 가쯘하게 자라고있는 모판이며 깊이갈이를 한 논에서 모내기가 한창인 청년작업반 포전들은 볼수록 마음이 흐뭇하였다.

그러나 우리를 더욱 기쁘게 한것은 작업반원들모두가 마치 기술원처럼 선진영농방법에 대하여 환히 알고 막히는것이 없는 사실이였다.

우리는 작업의 쉴참에 청년작업반원들과 마주앉았다. 작업반장 최경철동무와 반원들인 리향미, 김효일동무들…

농장적으로 첫손가락에 꼽히는 과학농사의 주인들치고는 너무도 젊은 청년들이였다. 하지만 가슴속엔 아름다운 지향이 간직되여있었다.

이곳 작업반원들이 철이 들면서 심장에 새긴것은 온 나라가 알도록 청산리를 내세워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뜨거운 사랑이였다. 부모들로부터 바통으로 이어받은것은 고향땅에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오곡백과 무르익는 청산벌을 기쁨속에 보여드리고싶은 하나의 소원이였다.

그 사랑에 보답하고 그 소원을 기어이 이룩할 열망을 안은 작업반원들은 과학농사의 주인들로 준비하기 위해 꾸준히 학습하였으며 실천해나갔다.

《이번에 앞선 모기르기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성과를 거둔 동무들이 바로 청년작업반원들입니다.》

농장일군의 말에 그들은 서로 마주보며 밝게 웃었다.

사실 작업반원들은 앞선 모기르기방법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논벼재배방법들을 알기 위해 피타는 노력을 기울였다. 하루일을 끝마치고 돌아와서는 몰려드는 피곤을 이겨내며 하나하나 앞선 영농방법을 터득해나갔고 이른 새벽이면 남먼저 포전으로 달려나가 걸싸게 일을 제끼였다.

언제인가는 이런 일도 있었다. 영양단지모를 처음 받아들이다보니 생각처럼 되지 않았다. 단지재료로부터 씨뿌림량, 모기르기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인 문제 등 모르는것이 너무도 많았다. 하지만 이들은 이악하게 달라붙었다. 과학농사에 알곡수확고를 높일수 있는 예비가 있다는것을 깊이 새겨안았기에 그들은 수백리 황해남도에까지 가서 영양단지모기르는 방법을 배워왔고 실천해나갔다.

작업반원들은 저녁이면 농업과학기술지식선전실에 모여앉아 모판관리와 논물관리, 비료시비 등 영농공정별로 기록해둔 록화자료를 보면서 서로 배우고 배워주며 날이 새는줄 몰랐다. 작업의 쉴참이면 포전머리에서 영농실천과 관련한 문제들을 문답의 방법으로 학습하여 배운 지식을 공고히 해나갔다.

이런 날과 달이 흘러 작업반은 농장적인 주체농법문답식경연에서 1등의 영예를 지니게 되였으며 이것은 그대로 봄철영농전투성과에서 나타났다. 올해 모내기를 앞두고 작업반은 마른논써레치기와 두둑짓기, 모기르기에서 농장적으로 앞선 자리를 차지하였다.

과학농사를 위한 보람찬 투쟁속에서 걸음걸음 성장의 키를 자래우고있는 청년작업반원들, 이들이야말로 농장의 행복한 오늘과 더 좋을 래일을 떠메고나갈 믿음직한 역군들이였다.

이런 주인들이 떠받들고있기에 청산리는 어제도 그러하였지만 오늘도 래일도 전국의 앞장에서 달려나가리라는 믿음이 우리의 가슴속에 차올랐다.

본사기자 정성일

단상 혁신자

오전취재를 끝내고 관리위원회를 가까이하던 나는 책가방을 멘 아이들이 속보판앞으로 우르르 몰려드는 바람에 그만 서버렸다.

《야, 우리 엄마, 아버지가 부부혁신자가 되였다.》, 《우리 아버지도 있어.》, 《우리 엄마도 있구.》…

혁신자사진들을 가리키면서 손벽을 치고 발을 구르며 기뻐하는 아이들이였다.

내곁에 다가온 리당일군이 격정절반, 기쁨절반 섞인 목소리로 말하였다. 제4, 9작업반같은데서는 작업반전원이 혁신자라고 한다. 며칠 있으면 10여개 농산작업반농장원들이 다 혁신자가 되겠는데 그러면 속보판이 모자라 야단이다. 집체사진이라도 찍어 붙이는수밖에 없다. …

생각이 깊어진 나는 속보판에 다가섰다. 나이와 생김새가 서로 다른 수십명 혁신자들은 이렇게 속삭이는것만 같았다.

—어버이장군님께서 바라신 청산리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순간 청산리에 봄이 와야 온 나라에 봄이 온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우렁우렁한 음성이 나의 심장을 쿵쿵 울려주었다.

혁신속에 애국이 있다. 비록 앞가슴에는 훈장이 번쩍거리지 않아도 심장속에는 애국의 소중한 보석들이 빛을 뿌리고있는 사람이 혁신자가 아니랴.

그렇다. 《혁신자》라는 부름을 값높은 호칭으로 여기고있는 청산리사람들이기에 이 하나의 지향안고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 5월의 하루하루를 위훈으로 빛내여가고있는것이리라.

본사기자 태명호

절세의 위인들의 불멸의 업적 깃들어있는 청산벌에 푸른 주단 펼쳐간다.
본사기자 한광명 찍음

뜻깊은 12일의 취득벌

제3작업반에서

5월 12일, 이날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취득벌에 몸소 모를 내신 뜻깊은 날이다. 이날을 높은 모내기실적으로 맞이하려는 제3작업반 농장원들의 각오와 열정은 남달랐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내기는 제철에 질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12일 이른아침 취득벌에 나선 농장원들의 얼굴마다에는 이름할수 없는 격정이 어리였다.

취득벌에 새기신 어버이장군님의 불멸의 자욱을 길이 전하기 위해 세운 현지지도표식비를 바라보는 농장원들의 가슴마다에는 모내기전투를 적기에 질적으로 끝내여 기어이 이 벌에 풍년로적가리를 높이 쌓을 불타는 맹세가 깊이 새겨졌다.

이윽고 전투가 시작되였다. 한쪽에서는 뜨락또르가 논판을 거울같이 일매지게 고루어놓는가 하면 다른쪽에서는 모내는기계들이 푸른 주단을 펼쳐갔다.

작업반장 민성철동무는 대오의 앞장에서 이신작칙하며 농장원들을 이끌었고 뜨락또르운전수 김광일동무는 영광의 포전에서 일하는 남다른 긍지를 안고 써레치기를 다그쳤다. 모내는기계운전공 최명운동무와 모공급수들인 김영희, 황혜숙동무들은 발동소리 높이 울리며 애써 키운 모를 정성담아 꽂아나갔다. 이에 뒤질세라 박복심동무를 비롯한 모판관리공들은 실한 모를 중단없이 보장해주기 위해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갔다.

평당 포기수와 포기당 대수를 정확히 보장하느라 흘러내리는 땀도 씻을념을 하지 않고 열정을 바쳐갈수록 이들에게는 뜻깊은 오늘을 위해 바친 나날이 떠올랐다.

례년에 없이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을 이겨내고 맞이한 오늘이였다. 이상기후현상으로 높아진 기온과 지속된 가물, 이것은 모기르기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작업반원들은 손맥을 놓지 않았다. 조건을 탓한다면 어찌 취득벌사람이라고 말할수 있겠는가, 우리의 힘과 지혜로 자연을 정복해나가자고 하면서 작업반원들모두가 떨쳐나섰다. 앞선 모기르기방법을 받아들인데 맞게 학습을 꾸준히 하였고 온도관리에 특별한 힘을 넣어 한 포기도 헛자라지 않게 하였다.

포기마다 여러가지 비료를 주면서 영양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였고 김한대 돋아날세라 한포기한포기 정성담아 가꾸었다.

성실한 구슬땀으로 키운 모여서, 한포기한포기가 제 살점같이 소중한것이여서 뜻깊은 이 봄날을 떳떳이 맞이하게 된 이들이였다.

오후작업이 시작되자마자 힘있게 울리는 경제선동의 북소리는 작업반원들의 열의를 더욱 북돋아주었다. 시간이 갈수록 푸른 주단이 끝없이 펼쳐지는 취득벌은 혁신창조로 세차게 끓어번지였다.

서쪽하늘가에 저녁노을이 곱게 물들무렵 방송선전차에서 방송원의 흥분된 목소리가 울려퍼지였다.

《제3작업반원들이 뜻깊은 오늘을 120%의 모내기실적으로 빛내였습니다!…》

뜻깊은 12일의 모내기실적 120%, 이것은 단순한 수자가 아니였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에 넘쳐있는 취득벌사람들이 아낌없이 바친 보답의 결정체,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쌀로써 받들어나가려는 충정의 높이였다.

본사기자

《우리도 청산리사람입니다》

청산리에 남포시구강병예방원 의료일군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자기들의 적은 힘이나마 보탬을 줄 한마음을 안고 달려왔던것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주의농촌테제를 철저히 관철하자면 모든 사람들이 농사에 관심을 돌리고 농촌을 적극 도와주어야 합니다.》

후에 안 일이지만 예방원에서는 농촌을 로력적으로 지원하는것과 함께 농장에 치료실을 꾸려놓고 구강치료를 진행하기로 토의하였던것이였다. 이렇게 되여 림창수, 김승식, 고영재, 조금철, 박균혁동무들은 청산리에 치료실을 꾸려놓고 식사시간마저 바쳐가면서 농장원들의 이발을 성의껏 치료해주고 위생선전활동도 벌리였으며 농사일을 적극 도와주었다. 구강치료에 필요한 재료들이 모자라면 평양과 신의주까지 밤길에도 서슴없이 나섰다. 이들의 의료봉사를 받은 농장원들의 수는 어느덧 수백명에 이르렀다.

모내기시작을 전후하여 의료일군들의 열의는 더욱 높아갔다. 이들에 대한 농장원들의 호평도 커만 갔다. 그럴수록 의료일군들은 더욱 분발하였다.

밤을 새우며 일하는 그들을 보다 못해 농장일군이 한나절만이라도 쉬라고 등을 떠밀자 그들은 웃으며 말하였다.

《우리도 청산리사람들입니다.》

청산리의 농사일을 진심으로 도와주고있는 사람들이 어찌 이들뿐이랴.

최고검찰소의 일군들은 농촌을 돕는 일은 우리자신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서 수십t의 가금배설물과 수많은 농기구, 작업복, 비옷, 신발 등 지원물자를 마련하여 보내주어 농장원들을 고무해주었다. 그런가하면 수매량정성과 농업성의 일군들도 봄철영농전투에서 걸린 문제들을 풀어주어 모내기준비를 원만히 할수 있게 하였다.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을 농장원들과 함께 지켜섰다는 자각을 안고 애국의 뜨거운 마음과 지성을 다 바쳐가는 이런 수많은 주인들의 손길이 청산벌에 푸른 주단을 펼쳐가고있다.

본사기자

평양시양어관리국에서

이동식그물우리양어성과 확대

봄빛흐르는 아름다운 대동강에서 이동식그물우리양어가 한창이다. 평양시양어관리국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올해에도 풍치수려한 대동강의 자연수역을 리용하여 이동식그물우리양어를 활발히 벌려 성과를 거두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양어과학과 기술에 대한 연구사업을 강화하고 선진적인 물고기기르기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우리 나라의 양어사업을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하여 발전시켜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강이나 호수, 바다에서 이동식그물우리양어를 하면 자연물흐름조건을 리용하여 동력이 없이도 좋은 수질을 보장하며 자연먹이에 의한 먹이효률을 높여 양어장에서보다 더 많은 물고기를 기를수 있다.

이동식그물우리양어는 간편하면서도 기동성있고 물고기생산량이 높으며 수역에 대한 적응성이 좋은것으로 하여 발전전망이 크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는 일찌기 그물우리양어방법으로 많은 물고기를 기를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대동강을 비롯하여 그물우리양어를 할수 있는 수역들에 이 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물고기생산을 늘이기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일군들은 이동식그물우리양어를 실속있게 하여 기념어, 화련어, 잉어를 비롯한 여러가지 물고기생산을 늘이기 위한 조직사업을 잘 짜고들었다. 이동식그물우리를 대동강에 설치한 후 이들은 현지에 나가 페하측정을 정상적으로 하고 먹이보장대책을 효과적으로 세웠다. 그리고 관리공들에게 이동식그물우리양어에서 제기될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제때에 알려주면서 기술지도에 힘을 넣었다. 관리공들은 자신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며 물고기기르기와 이동식그물우리관리를 기술적요구대로 하는데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였다.

일군들과 관리공들은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쳐 여러가지 물고기들을 합리적인 비률로 섞어 기르고 계절조건에 맞는 양어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겨울철에도 물고기들을 튼튼하게 키웠다. 겨울철에 얼음장밑으로 대동강의 물이 계속 흐르기때문에 양어장에서보다 산소보장을 더 잘할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리용하여 그전에 비해 물고기겨울나이률을 훨씬 더 높이였다.

이들이 조사한데 의하면 지난해 5월 이동식그물우리에 넣은 수십g짜리 물고기가 현재 수백g되게 자랐다고 한다.

양어관리국에서는 지난 시기의 경험에 기초하여 이동식그물우리양어를 계속 근기있게 내밀면서 물고기생산을 늘일수 있는 전망을 열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김성철

수천길땅속에 펼쳐진 또 하나의 새로운 화폭

검덕광업련합기업소에서

나라의 대규모유색금속광물생산기지로 유명한 검덕광업련합기업소에서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수천길땅속을 썰며 뻗어내린 20수직갱!

지하의 억만재부를 단숨에 걷어안을듯 길이 수백m에 달하는 대형수직갱이 광부들을 태울 승강기와 광차설비까지 그쯘히 갖추고 심부에 깊숙이 뿌리박았다.

이제라도 금시 눈앞에 보이는것만 같다. 새로 태여난 수직갱의 층단마다에서 수십수백개의 크고작은 채굴장들이 부채살처럼 가지를 치며 겨끔내기로 쏟아붓는 장쾌한 광석폭포가.

검덕의 수천길지하막장에 펼쳐진 새로운 화폭은 조선속도창조로 들끓는 이 땅의 벅찬 숨결로 호흡하며 비약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검덕로동계급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애로와 난관이 가로놓일수록 필승의 신념과 비상한 각오를 더 굳게 가지고 대담한 공격전, 전인민적인 결사전을 벌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적과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야 합니다.》

인차를 타고 20리, 다시 수직승강기를 타고 지하 수백m수준에까지 내려가면 여기서부터 20수직갱이 시작된다.

지심깊이 뻗어내린 수직갱, 이 수직갱건설로 하여 검덕은 기름진 광석밭을 배심좋게 타고앉게 되였다.

보이지 않는 땅속에 거창하게 뻗어내린 대형수직갱은 나라의 지하자원개발을 위해 바친 로동계급의 값높은 위훈을 말없이 전하고있다.

20수직갱건설을 위한 첫 발파의 동음이 울려퍼진것은 지금으로부터 3년전이였다.

새 수직갱이 뻗어내려가게 될 층단마다에서 동시에 울려퍼진 발파의 동음은 검덕로동계급의 가슴마다에 5년이상은 걸린다던 공사기일을 훨씬 앞당길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련합기업소일군들이 기존방법에 매달리지 않고 대담하게 이미 있는 수직갱에서 새 수직갱까지 층단별로 수평갱도들을 뚫고들어가 갱을 확장하고 관통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립체적으로 벌릴 작전을 펼쳤던것이다.

공사의 첫걸음을 힘있게 내짚은 갱건설사업소의 로동계급이 층단마다에서 하루에 수m씩 전진하며 수평갱도를 뚫고나갔다. 권양기를 비롯한 설비들을 앉힐 대형갱실건설도 동시에 벌어졌다. 그러나 공사는 순탄하게만 진척되지 않았다. 수천길지하에서의 건설공사인것만큼 예상치 않았던 자연피해가 들이닥쳤으며 심부깊이로 내려갈수록 배수조건, 배풍조건 등 애로와 난관은 겹겹이 막아나섰다.

수백m의 심부에서 락광장건설을 위해 30m를 더 뚫고내려가던 때였다.

뽐프설비들이 맹렬히 가동했지만 물은 계속 차올라 착암작업은 여간만 힘들지 않았다. 착암수들은 물속에서 손더듬으로 발파각도를 가늠하지 않으면 안되였으며 한구멍을 뚫고는 재빨리 나무막대기를 꽂아넣어야 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발파구멍들이 미광물에 메워져버렸던것이다.

올리굴뚫기보다 더 어려운 내리굴뚫기를 이렇듯 악조건에서 내밀면서도 그들은 누구 하나 조건타발을 몰랐다.

물우에 발파구멍을 표식하는 나무막대기들이 하나둘 늘어나 어느덧 발파를 앞둔 시각이였다.

웃부분에서 뜻하지 않게 물이 터지면서 감탕이 쏟아져내렸다. 순간에 감탕이 차올라 뽐프가 가동을 멈추었다. 설비의 동음은 멎었으나 난관을 박차고 일떠선 1갱 로동계급의 심장은 세차게 고동쳤다. 굴진작업을 하던 20여명의 로동자들이 지체없이 감탕퍼내는 전투를 벌리였다. 이들은 바께쯔가 모자라면 안전모를 동원해서라도 감탕을 퍼냈고 광차가 있는 곳까지 사다리를 타고 감탕을 져날랐다. 단 하루만에 많은 량의 감탕을 퍼낸 이들은 새로운 활기에 넘쳐 발파소리 높이 울리며 암벽을 밀고나갔다.

불리한 조건을 이겨내고 굴진에서 놀라운 속도를 창조해가는 1갱 로동계급의 소식은 층단마다에서 일손을 다그치는 로동계급을 새로운 로력적위훈에로 불러일으켰다.

웃부분의 50m구간을 담당한 3갱의 로동계급은 석수가 쉬임없이 흐르고 암석상태가 좋지 못한 조건에서도 발파효률을 그전보다 8%나 더 높여 맡은 운반갱도굴진을 와닥닥 해제끼였다. 층단마다에서 이런 새 기록이 련이어 창조되는 속에 수직갱의 확장공사는 빠른 속도로 진척되였다.

드디여 수직갱이 하나로 관통되였다. 더 어려운 전투가 시작되였다. 수백m나 되는 구간에서 콩크리트피복공사를 진행하고 육중한 설비들을 조립해가던 지난 1년간의 나날들은 그야말로 생사를 판가리하는 격전의 날과 달들로 이어졌다. 석수가 비오듯 쏟아져내리는 수직갱에서 콩크리트치기작업을 한다면 누구나 쉽게 믿기 어려울것이다. 이들은 마른 혼합물이 내려오면 떨어지는 석수로 재빨리 혼합을 한 다음 콩크리트치기를 다그쳤다. 많은 량의 석수가 떨어질 때에는 물안개로 하여 옆사람도 가려보기 어려웠지만 아찔한 허공을 가로질러간 철보우에서 그들은 웃으며 일하였다.

허리를 치는 물속에서 세멘트를 나르고 아직은 권양설비를 쓸수가 없을 때에는 사다리를 타고 수백m를 오르내리며 물동량을 나른 이들의 가슴속에 무엇이 끓고있었는지 우리 어찌 물어서 알랴.

80여개에 달하는 크고작은 설비들을 수직갱으로 안전하게 끌어들이는 전투는 그야말로 격전장을 방불케 했다. 이들은 큰 설비들은 최대한 분해할수 있는것 분해하고 승강기안에 실을수 없는 중량물들은 활차에 달아 수직갱속으로 직접 내려보냈다. 웬만한 담력이 없으면 엄두도 낼수 없는 일이였다. 중심을 잃으면 아차하는 순간에 돌이킬수 없는 사고가 생길수 있었지만 하루빨리 유색금속광물생산의 활로를 열어가려는 이들의 피끓는 심장은 매일, 매 시각 기적만을 낳았다.

땅속에서 하늘을 나는 수리개로 불리우는 설비조립직장 로동계급의 위훈도 20수직갱건설에 값높이 수놓아져있다.

장비설치를 위해 설비조립직장의 로동계급은 수백m구간에 88개의 고정틀설치를 석달어간에 해제끼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아슬아슬한 철보에 매달려 고정틀을 아래우로 용접을 해야 하는 위험한 작업을 리병일, 김윤호, 량철만, 김금철동무를 비롯한 용접공들은 스스럼없이 맡아나섰다. 석수가 쏟아져내릴 때에는 우산을 받치고서라도 용접의 불꽃을 날렸고 웃부분에서 콩크리트작업이 동시에 진행될 때에는 발판으로 머리우를 덮으면서 용접을 중단없이 진행했다. 이런 무비의 용감성과 희생성을 지녔기에 검덕로동계급은 막아서는 난관도 억센 의지로 뚫고나갔던것이다.

건설의 나날 잠자리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로동계급속으로 옮긴 련합기업소 당, 행정책임일군들과 참모부서일군들의 열기띤 모습은 어디에서나 볼수 있었다.

세멘트바가지가 내리치는 충격으로 2층발판이 못쓰게 되였을 때였다. 발판을 보수하자면 적어도 보름나마 걸려야 하였다.

(순간도 공사를 중단할수 없다!)

뜻도 마음도 숨결도 하나가 된 동발공들이 두대의 동발을 수직갱에 가로질러놓고 그우에 우물정자로 림시발판을 만들어놓았다. 그러나 거기로 제일먼저 들어선것은 련합기업소일군들이였다. 안전여부를 먼저 검토해보는 일군들의 뜨거운 진정을 느끼며 로동자들은 보름동안에 수십m³의 콩크리트치기를 진행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운반로선을 복구할 때 제한된 공간속에서 10m나 되는 레루를 바줄로 매여 한치한치 끌어당기는 대렬속에도 련합기업소 부지배인을 비롯한 일군들이 있었고 석수를 함께 맞으며 시공지도를 한 책임일군의 모습도 로동자들의 기억속에 새겨졌다.

일군인지 동발공인지 수리공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고, 그래서 더 힘든줄 모르고 일했다고 속을 터놓는 검덕로동계급의 목소리가 오늘도 천길지하막장에 울려퍼지고있다.

치밀한 작전도 중요하지만 이 신작칙보다 더 큰 선동은 없다.

일군들의 이렇듯 헌신적이고 열정에 넘친 보폭을 따라 광물증산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는 또 하나의 창조물이 검덕의 천길땅속에 억척같이 뿌리를 내린것이다.

* *

수년간 보이지 않는 땅속에서 값높은 위훈을 세운 이들의 이름을 다 적지 못하는 아쉬움을 안고 우리는 펜을 놓는다. 수직갱에서 만났던 많은 로동자들이 저저마다 집단의 단합된 힘이 없이는 그 어떤 위훈에 대해 생각할수 없다고 절절히 말하였던것이다.

일군을 통해서야 이름을 알아낸 동발공 차철호동무의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선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신 과업을 이제야 관철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좀더 이악하게 투쟁했더라면…》하며 그는 뻘겋게 달아오른 눈시울을 적시였다.

우리는 그의 마음속진정에서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를 깨끗한 량심과 의리로 받들어가는 검덕로동계급의 심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진주보석같은 마음을 지니고 수천길땅속에서 애국의 더운 땀을 아낌없이 바쳐온 검덕로동계급의 위훈을 조국은 잊지 않을것이다.

본사기자 리철옥

항일혁명문학예술은 주체문학예술의 만년초석이다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창작하시여

온 나라에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정신이 맥박치는 투쟁과 변혁의 시기에,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혁명적인 사상공세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어번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가 열리게 된다.

우리 당력사에 금문자로 아로새겨질 뜻깊은 대회와 더불어 이 땅우에 장엄하게 울려퍼질 새로운 문학예술혁명의 포성,

그 위대한 화폭을 가슴벅차게 그려볼수록 일찌기 항일의 불길속에서 불후의 고전적명작창작활동으로 위력한 사상전의 본보기, 주체문학예술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뜨겁게 되새기게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의 주체적문학예술의 깊고 억센 뿌리이며 만년초석인 우리 당의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은 수령님께서 친히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로 하여 더욱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습니다.》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조국해방의 큰뜻을 품으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문학예술을 혁명투쟁의 위력한 무기로 보시고 항일의 불바다속에서 정력적인 사색과 실천으로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창작하시여 수난많던 우리 민족의 앞길에 승리의 불길을 활활 지펴올리신 어버이수령님,

지금도 귀기울이면 쟁쟁히 들려오는것만 같다.

우리 수령님께서 초기혁명활동시기에 높이 울려가신 《조선의 노래》가.

아침의 해빛이 아름답고
곱다고
우리의 이름을 조선이라
불렀네
…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노예의 운명속에 신음하던 우리 인민에게 단군조선과 더불어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자랑하는 단일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이 차넘치도록 해주고 해방의 종소리를 환희롭게 안겨준 이 노래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이다.

민족적정서를 바탕으로 하고 혁명적내용으로 일관되여있는 명작은 여러 지역들에서 공연될 때마다 대절찬을 받았으며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 열렬한 조국애와 민족적자부심을 북돋아주고 빼앗긴 조국땅을 기어이 되찾으려는 불같은 결의를 굳게 새겨주었다.

이렇듯 한편의 명작으로 피눈물속에 스러져가던 민족의 넋을 흔들어 깨우고 조국해방성전에로 전민을 불러일으키신 위대한 수령님의 특출한 혁명실천은 항일혁명투쟁의 전로정에서 더욱 거세찬 승리의 북소리를 터쳐올렸다.

항일유격대원들이 모진 고난과 시련속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혈전만리를 꿋꿋이 헤쳐나간 그 밑바탕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창작하신 《그리운 산천 광복의 그날 아돌아가리라》는 《사향가》의 피같은 선률이 진하게 흘렀다. 일제의 악착스러운 포위와 천교령의 그 세찬 눈보라속에서, 고열속에서 우리 수령님 한자한자 지으신 《일어나라 단결하라 로력대중아 굳은 결심 변치 말고 싸워나가자》는 《반일전가》를 합창하며 신념의 기둥을 더욱 억세게 세운 투사들이였다.

절대불변의 신념과 의지, 혁명적락관주의가 굽이치는 《조선인민혁명군》, 《조국광복회10대강령가》를 비롯하여 항일의 피어린 전구마다에서 끝없이 메아리친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 몸소 창작하시여 인민들에게 자주적운명개척의 서광을 안겨주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은 이러한 작품들뿐아니라 연극과 가극, 무용을 비롯한 문학예술의 모든 종류와 형태를 다 포괄하고있어 더욱 빛나는 주체문학예술의 전통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창작하신 대본에 기초하여 만강의 두메산골마을에서 초연무대를 펼친 《피바다》를 보고 수많은 열혈청년들이 무대에 뛰여올라 유격대입대를 청원한 력사적사실은 몇천만 t의 식량도 대신할수 없는 사상전의 무기로서의 예술의 위력을 웅변적으로 보여주었다.

광범한 인민대중을 자주적인 반일애국사상으로 교양하는데 크게 이바지한 《안중근이등박문을 쏘다》, 《혈분만국회》, 《3인1당》, 《성황당》과 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을 조국해방의 성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킨 《꽃파는 처녀》, 《한 자위단원의 운명》…

유격근거지아동단원들에게 《단심줄》, 《13도자랑》과 같은 무용들을 배워주시며 너희들은 우리 조국의 꽃봉오리이며 앞날의 기둥이다, 너희들이 명랑할 때 우리도 명랑하고 너희들이 잘 자라면 우리도 기운이 솟는다고 하신 우리 수령님의 숭고한 미래사랑속에 얼마나 많은 혁명의 계승자들이 항일의 불길속에서 억세게 자라났던가.

정녕 우리 수령님께서 류례없이 간고하였던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줄기차게 벌리신 다방면적인 불후의 고전적명작창작활동은 장구한 인류사가 해결하지 못하였던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을 위한 투쟁에서 제기되는 자주성에 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에 옳바른 해답을 주고 전민을 조국해방의 성전에 굳게 묶어세운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렸다.

인류사상 처음으로 문학예술과 혁명을 결합시키고 위력한 노래포성, 장엄한 투쟁의 북소리로 사상전의 본보기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은 세기와 더불어 끝없이 빛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1970년대에 활활 타번진 문학예술혁명의 불길속에서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앙양기가 펼쳐졌다면 오늘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빛나는 예지의 빛발따라 항일유격대나팔수들처럼 사상전의 우렁찬 진군가를 세차게 울려가는 모란봉악단의 혁명적이고 인민적이며 참신한 예술활동으로 온 나라가 혁명열, 투쟁열로 불도가니마냥 끓고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항일의 불바다속에서 마련해주시고 빛내여주신 주체문학예술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굳건히 이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높이 받들어 새로운 문학예술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나갈 때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대고조전구마다에서 비약의 발구름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질것이며 선군혁명의 최후승리는 더욱 앞당겨질것이다.

본사기자 오철룡

주체미술의 빛나는 전통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항일혁명문학예술은 일찌기 그 어느 시기에 창조된 문학예술에도 없었던 사상리론적재부와 창작실천적재부를 가진 문학예술이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창조된 항일혁명미술에 의하여 우리 미술은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섰으며 그때부터 시대의 요구, 인민대중의 지향을 가장 정확히 반영한 주체미술의 시원이 열리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투쟁의 첫 시기부터 미술을 사상교양의 힘있는 수단으로 보시고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미술발전을 위한 사상과 리론을 제시하시였으며 그것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미술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마련하시였다.

그리하여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우리 인민의 감정과 정서에 맞으며 조선혁명에 철저히 복무하는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미술의 참다운 본보기가 마련되였으며 심오한 설득력과 강한 호소성을 가진 전투적인 미술형태들이 급속히 발전하였다.

조선화 《혁명가의 지조》, 선전화 《조선동포들에게 격함》, 판화 《사령부의 불빛》, 등사그림 《나팔수》, 만화 《망을 다 간 다음에 하늘소를 잡아먹다》, 삽화 《아 그리운 조국이여!》 등은 항일혁명투쟁시기 우리 미술의 발전면모를 잘 보여주고있다.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혁명적인 수예와 서예, 무대미술도 창조되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놓으신 조선수 《무궁화삼천리》 그리고 청봉숙영지를 비롯하여 전국각지에 있는 구호나무들에 씌여진 혁명적글발들, 항일혁명연극의 창조활동과정에 그려진 전투적이며 기동적인 무대미술 등에서 알수 있는바와 같이 이 나날 여러가지 형식의 미술작품들이 창작되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된 수령형상미술작품들은 미술에서 수령형상창조의 시원을 열어놓은것으로 하여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미술작품에 수령의 혁명활동과 고매한 덕성을 형상하는것은 혁명적예술의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숭고한 사업으로 된다.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위인초상미술은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 모신 우리 인민들에게 그이에 대한 끝없는 흠모심과 함께 조국해방의 신심을 안겨주었다.

조선화 《빨찌산호랑이》, 《김일성사령관 원쑤격멸에로 부르시다》, 판화 《작전을 구상하시는 김일성사령관》, 《강도일제의 만행에 복수를 다지시는 김대장》 등 불멸의 영상작품들은 백두산의 장수별로 솟아오르시여 강도 일제놈들을 통쾌하게 때려부시는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천출위인상을 생동하게 잘 보여주고있다.

이밖에도 인민들과 대원들을 위하여 크나큰 헌신과 사랑을 수놓아가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위인적풍모를 소박하면서도 뜻깊게 형상한 명작들도 있고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그들을 조국해방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절세위인의 숭고한 모습을 훌륭히 형상한 작품들도 있다.

항일혁명투쟁의 피어린 나날 민족적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을 형상한 수많은 미술작품들은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열렬한 수령숭배심을 심어주었으며 주체미술사의 한페지를 빛나게 장식하였다.

항일혁명의 불길속에서 마련된 자랑스러운 전통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의 미술은 자기의 혁명적이며 주체적인 성격을 뚜렷이 하고 시대의 요구,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에 복무하는 참다운 예술로 더욱 개화발전하게 되였다.

본사기자 공로혁

영원한 승리의 메아리

밤하늘을 밝혀준 《조선의 별》

간악한 일제에게 짓밟힌 조선은 래일을 전혀 내다볼수 없는 암흑천지였다.

그 누구보다도 정의를 사랑하는 불같은 인간이였던 김혁동지였지만 자기를 이끌어주고 인민을 령도해줄 지도자가 없던탓에 오래동안 방황하며 울분과 한탄에 가슴을 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온것은 그의 인생행로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로 되였다.

만나뵈올수록 우리 수령님의 위대성에 매혹을 금할수 없었던 그는 솟구쳐오르는 흠모와 격정의 붓을 높이 들어 불멸의 혁명송가 《조선의 별》을 한자한자 적어나갔다.

이 노래는 우리 민족이 그처럼 절절하게 바라면서도 실현할수 없었던 통일단결의 중심을 마침내 찾은 김혁동지의 가슴속에서 터져나온 심장의 분출이였다.

김혁동지는 차광수동지를 비롯한 새 세대 혁명가들과 함께 이 노래를 길림일대에 널리 보급하였다.

한편의 수령송가는 그대로 짓밟히고 억눌려살던 우리 인민들의 마음속에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여 조국해방의 서광은 기어이 밝아온다는 희망을 안겨주었으며 항일의 혈전장들마다에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려준 강위력한 사상적무기로 되였다.

마음의 문을 연 하모니카소리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대오를 이끄시고 제1차 북만원정의 길에 오르시였을 때에 있은 일이다.

당시 일제와 만주군경들의 무차별적인 백색테로로 하여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에 잠겨있었다.

게다가 혁명가들에 대한 민족주의자들의 외곡선전은 인민들의 혁명의식발전에 막대한 해독을 끼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날 정치공작조가 침을 뱉고 돌아선 그 마을에 각 중대에서 하모니카를 잘 부는 대원들을 모아 조직한 하모니카중주단을 데리고가서 인민들의 심장을 다시한번 흔들어보라고 하시였다.

하모니카중주단은 인촘 팽이를 돌리던 두세명의 아이들부터 시작하여 온 동네의 어른들까지 다 공연이 진행되는 장소로 불러내였다.

공연이 끝나자 항일선전과 넋안지방 사람들은 혁명적인 사조만 경계한것이 아니라 소속과 사명에 관계없이 군대란 군대는 다 싫어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 팔도하자구당사업을 료해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오직 진심만이 우리의 피와 인민의 피를 하나의 동맥속에 융합시킬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날 정치공작조가 침을 뱉고 돌아선 그 마을에 각 중대에서 하모니카를 잘 부는 대원들을 모아 조직한 하모니카중주단을 데리고가서 인민들의 심장을 다시한번 흔들어보라고 하시였다.

하모니카중주단은 인촘 팽이를 돌리던 두세명의 아이들부터 시작하여 온 동네의 어른들까지 다 공연이 진행되는 장소로 불러내였다.

공연이 끝나자 항일선전과 혁명군원호를 호소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

어버이수령님의 탁월한 예지와 선견지명에 다시금 놀라움과 감탄을 금할수 없었던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인민의 마음을 여는 열쇠는 선전공작의 통속성과 진실성에 있다는것을 절실히 깨달았으며 그후 이 경험에 토대하여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녕안현의 수십개 마을들을 점차적으로 혁명화하였다.

원쑤들을 전률케 한 간삼봉의 《아리랑》

주체26(1937)년 6월 30일, 아침부터 가랑비가 내리고 안개가 뽀얗게 낀 이날 보천보전투를 전후하여 계속 얻어맞은 적들은 땅바닥까지 떨어진 제놈들의 위신을 추켜세워보려고 조선인민혁명군이 있는 간삼봉으로 물밀듯이 쓸어들었다.

비가 내리는 속에서 종일토록 계속된 어려운 전투였으나 유격대의 지휘관들과 대원들은 혁명가의 자부심, 승리자의 신심을 안고 적들을 굽어보면서 날이 저물도록 놈들을 무자비하게 답새기였다.

이때 녀대원들이 싸움을 하면서 부른 《아리랑》의 노래소리가 전대오에 퍼지였다.

간삼봉전투장에 울린 《아리랑》은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가슴마다에 떨쳐진 기상과 승리에 대한 신심을 더욱 북돋아주었고 적들을 전률케 하였다.

간삼봉전투는 《강대성》을 자랑하던 왜놈들에게 무리죽음을 안기고 조선인민혁명군의 승리로 끝났다.

간삼봉에 울려퍼진 《아리랑》!

이 노래는 원쑤들을 정신적으로 압도하고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필승의 신념과 혁명적락관주의를 힘있게 과시한 승전가였다.

조향미

전구마다에 울려퍼진 혁명가요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시대를 선도하고 인민대중을 불러일으키는데서 혁명적인 노래가 노는 역할은 매우 크다.》

항일의 전구에 울려퍼진 혁명가요들중에는 항일혁명투사들이 직접 창작하였거나 그들속에서 널리 불리워지던 혁명적인 노래들도 있다.

항일혁명투사들이 직접 창작하였거나 그들속에서 널리 불리워지던 혁명적인 노래들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조직진행된 항일혁명투쟁의 영웅적현실과 항일혁명투사들의 숭고한 정신세계가 폭넓고 깊이있게 반영되여있다.

《유격대행진곡》, 《혁명군의 노래》, 《빨찌산추도가》, 《혁명군이 되였다》, 《옥중투쟁가》를 비롯한 많은 혁명가요들에는 항일혁명투사들이 지닌 숭고한 사상정신세계가 진실하게 반영되여있다.

이 작품들에는 반혁명적폭력에는 혁명적폭력으로 맞서야 하며 오직 무장투쟁으로써만 일제를 쳐부시고 조국해방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이 뚜렷하게 강조되였다.

뿐만아니라 이 작품들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억천만번 죽더라도 원쑤를 칠 불굴의 정신력을 지닌 항일혁명투사들의 숭고한 사상정신세계가 부각되였다.

항일혁명투사들의 숭고한 사상정신세계는 그들이 지닌 뜨거운 조국애의 감정과 미래에 일떠세울 새 사회에 대한 혁명적리상을 반영한 혁명가요들에서도 진실하게 표현되였다.

《내 조국을 한품에 안으리》, 《어머니리별》, 《인민주권가》, 《즐거운 무도곡》 등은 숭고한 조국애와 인민의 주권을 세우려는 불타는 지향을 지닌 항일혁명투사들의 사상감정을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반영하고있는 혁명가요들이다.

항일혁명투사들이 직접 창작하였거나 그들속에서 널리 불리워지던 혁명적인 노래들에는 성스러운 반제민족해방투쟁, 계급투쟁에로의 궐기를 힘있게 호소한 작품들도 있다.

《총동원가》, 《결사전가》, 《적기가》, 《단결하라 무산대중》 등은 그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이 작품들에는 반제민족해방, 계급해방의 사상이 강렬하게 표현되였다.

작품들에는 일제를 쳐부시고 민족해방을 이룩하는 동시에 착취계급을 뒤집어엎고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새 사회를 건설할데 대한 혁명사상이 깊이있게 일반화되여있으며 그것이 구체적인 생활감정으로 생동하게 노래되였다.

항일혁명투사들이 직접 창작하였거나 그들속에서 널리 불리워지던 혁명적인 노래들에는 다음으로 일제를 쳐부시고 조국해방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각계층 인민들이 통일단결할데 대한 사상도 반영되여있다.

《통일전선가》, 《민족해방가》, 《모두다 반일전으로》를 비롯한 많은 작품들에는 조국해방을 위해서는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리는것과 함께 혁명에 리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력량을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 묶어세워야 한다는 위대한 수령님의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형상적으로 깊이 구현되여있다.

혁명적인 노래들에는 이밖에도 로동자와 농민들을 계급적으로 각성시키고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내용을 반영한 작품, 녀성들을 봉건적질곡에서 해방하고 그들에게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보장할데 대한 내용을 담은 작품, 혁명적아동들의 보람찬 생활과 리상을 반영한 작품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주제의 작품들이 있다.

항일의 전구에 울려퍼진 혁명가요들은 혁명성, 전투성, 호소성을 강하게 띠고있으며 사상주제적내용의 다양성과 풍부성 그리고 언어표현의 인민성으로 특징지어진다.

이 혁명가요들은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과 인민들속에 널리 보급되여 불리우면서 혁명의 위력한 무기가 되여 그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피어린 항일혁명투쟁에서 승리자가 된 항일혁명투사들이 조국에 개선했을 때 그들에게는 빈 배낭과 혁명가요수첩밖에 없었다.

우리에게는 그 혁명가요수첩이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가장 고귀한 유산이고 재부였다.

그 노래들은 우리 혁명의 전진과 더불어 항일의 전통을 이어나가는 혁명대오속에서 더욱 우렁차게 울려퍼지고있으며 노래소리 높은 곳에 반드시 혁명의 승리가 있다는 력사의 진리를 오늘도 새겨주고있다.

본사기자 백성근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재일동포조국방문단들, 중국장애인련합회대표단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12일 재일동포조국방문단들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방문단성원들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총련의 강화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담아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 *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12일 중국장애인련합회대표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손님들은 나라들사이의 친선관계발전과 인류자주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담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제17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 개막

제17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가 개막되였다.

전람회개막식이 12일 3대혁명전시관에서 진행되였다.

개막식에는 김용진내각부총리, 리룡남무역상, 김성덕 평양시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리학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상업회의소 소장, 무역부문 일군들과 여러 나라와 지역의 대표단들,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 대사관성원들이 참가하였다.

박웅식 조선국제전람사 사장의 개막연설에 이어 오룡철 무역성 부상의 축하연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자주와 평화, 발전과 번영을 이룩하려는 공통된 지향과 념원을 안고 제17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에 참가한 여러 나라와 지역의 대표단성원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낸다고 말하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강성국가건설을 진두에서 이끄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전람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깊은 관심을 돌려주신데 대하여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하여 오늘 전람회가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들사이의 경제무역관계를 확대하고 경제발전을 추동하는 국제적인 경제회합으로 발전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전람회를 통하여 참가자들이 경제강국건설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하고있는 성과들을 직접 목격하게 될것이며 여러 분야에서 다방면적인 과학기술교류를 진행하게 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우리 나라와 중국, 뉴질랜드, 도이췰란드, 말레이시아, 몽골, 스위스, 싱가포르, 오스트랄리아, 인도네시아, 웰남, 이딸리아, 타이, 꾸바, 뽈스까, 중국대북의 회사들에서 출품한 전시품들을 돌아보았다.

전람회는 15일까지 진행된다.

【조선중앙통신】

미국은 더이상 식민지노복의 동족대결소동을 무턱대고 비호두둔하지 말아야 한다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담화

최악의 통치위기에 직면한 박근혜역적패당이 어리석게도 격노한 민심의 이목을 우리에게로 돌리려고 그 무슨 《무인기사건》의 《북소행》설을 내돌리고있다는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는 괴뢰들의 새로운 동족대결《모략극》을 미국이 어떻게 써먹는가를 주시해보았다.

예견하였던바 그대로 이번에도 미국은 순간에 먹이감을 덮치는 승냥이처럼 괴뢰들의 모략소동을 덥석 받아물고 제 리속을 차리는데 활용하고있다.

어제는 갑작스러운 서울행각길에 나서서 주구와 함께 우리의 《도발》과 《위협》에 대해 악청을 돋구었다면 오늘은 괴뢰들이 줴쳐대는 《무인기사건》의 《북소행》설에 맞장구를 치고있는것이다.

거기에 한술 더 떠 다 거덜이 난 유령기구인 《유엔군사령부》의 떨거지들을 판문점군사분계선상에 내몰아 괴뢰들의 《무인기사건조사결과》내용을 앵무새처럼 외우면서 우리가 정전협정 제2조 16항과 17항을 위반하였다고 항의하는 확성기《통보》놀음까지 벌리였다.

미국의 추태는 역시 가재는 게편이고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 그른데 없음을 그대로 말해주고있다.

지금도 미국은 4년전 괴뢰들이 조작한 《천안》호침몰사건때에 놀던 모양을 판에 찍은듯이 그대로 재현하고있다.

그때에도 괴뢰들이 꾸며낸 특대형《모략극》의 추악한 진면모가 드러나게 되자 우리가 제기한 국방위원회 검열단 현지파견과 사건진상조사를 한사코 막아나서면서 아닌보살하며 치사하게 놀아댄것이 바로 미국이였다.

괴뢰들과의 그 무슨 동맹이 아무리 귀중하고 수치스러운 정치매춘부와의 《밀월》이 그토록 소중하다 해도 대국이라면 덩지큰 그 체모와 리치에 맞게 말도 하고 행동도 해야 할것이다.

그렇지 않고 주구들이 입을 나불거리는대로 불어대는 《확성기》역할에만 골몰하다가는 철없는 코흘리개를 무작정 안고돌며 달래는 망녕든 할애비같다는 비난만 받기 마련이다.

미리부터 괴뢰들과 머리를 맞대고 짜놓은 모략각본에 따라 또다시 우리를 걸고드는 미국에 따져묻지 않을수 없다.

상대방의 령공을 존중하며 일체 공중도발행위를 하지 않을데 대해 규제한 정전협정해당 조항들을 중시한다는 미국이 무엇때문에 전략정찰기를 비롯한 공중비적들을 수시로 우리의 령공에 침입시키고 핵전략타격비행대의 어지러운 폭음으로 신성한 조선반도의 푸른 하늘을 어지럽히는 도발에 매달리는가.

수만리 대양건너 남의 나라 땅을 타고앉아 조선정전협정을 계통적으로 파괴, 유린, 위반하면서 끊임없는 군사력증강과 침략전쟁연습으로 일촉즉발의 엄혹한 초긴장을 조성시키는 미국이 그 주제에 누구의 《정전협정위반》에 대해 떠들 한쪼각의 체면이나 자격이라도 있는가.

우리는 지금 미국이 벌리는 모든 행위가 유라시아대륙포위환형성에 필요한 방대한 무력증강과 그 전초기지로서의 남조선영구강점을 정당화하기 위한 《유력한 명분》을 쌓자는 검은 속내와 관련되여있다는것을 모르지 않는다.

거듭 천명하지만 《무인기사건》의 《북소행》관련설은 철두철미 미국과 괴뢰들이 함께 날조해냈던 《천안》호사건의 재판인 반공화국《모략극》이다.

진상은 이미 백일하에 드러났으며 《모략극》을 꾸며낸 장본인들이 력사와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것은 시간문제이다.

미국은 더이상 가련한 식민지종복의 동족대결소동을 무턱대고 비호두둔하는 어리석은짓을 그만두고 제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할것이다.

주체103(2014)년 5월 11일
판문점

우리 나라 선수들 제7차 동아시아유술선수권대회에서 우수한 성적 쟁취

우리 나라 선수들이 제7차 동아시아유술선수권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쟁취하였다.

몽골의 울란바따르에서 진행된 이번 선수권대회에는 우리 나라와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지역의 남녀선수들 90명이 참가하였다.

녀자 48kg급경기에 출전한 전유순선수는 중국대북, 몽골선수들을 누르고 결승경기에 진출하였다.

그는 자기의 특기를 잘 살리면서 완강한 투지를 발휘하여 일본선수를 압도적인 기술적우세로 이겼다.

한편 녀자 63kg급경기에서 김수경선수가 2위를 차지하였으며 남자 60kg급, 66kg급, 81kg급경기에서 김충혁, 최영식, 박홍위선수들이, 녀자 52kg급, 70kg급경기에서 림성심, 김송화선수들이 각각 3위를 하였다.

우리 선수들은 이번 선수권대회 녀자단체경기에서 3등을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에네르기절약기술을 적극 받아들이자

최고과학기술상을 받은 고성능먼적외선복사체

국가과학원 나노재료연구소 연구사 연규정동무와 과학자들

올해의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으며 국가과학원 나노재료연구소 먼적외선복사체연구집단의 과학자들이 나라의 최고과학기술상인 2.16과학기술상을 수여받았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지켜 누가 알아주건말건 실리가 큰 에네르기절약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탐구의 길을 걷고 또 걸으며 성능높은 먼적외선복사체를 연구도입한 연규정동무를 비롯한 과학자들에게 여러 부문의 많은 단위들에서 축하의 인사를 보내여오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긴장한 전력문제, 에네르기문제를 어떻게 하나 우리의 자원과 기술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당면하여 수력발전소들과 화력발전소들의 발전능력을 최대로 높이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과 에네르기절약기술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먼적외선복사체는 일정한 형태와 기술적특성을 가진 기초재료에 먼적외선복사재료를 입혀 만든것이다. 이 복사체는 가열건조하려는 물체를 빨리 가열할뿐아니라 내부와 외부를 동시에 가열함으로써 건조속도를 훨씬 높여준다. 그러므로 봉형이나 판형으로 만든 먼적외선복사체를 가열건조공정에 받아들이면 많은 전기를 절약하면서도 생산을 늘이고 제품의 질을 높일수 있다.

먼적외선복사체연구집단의 과학자들이 먼적외선복사체개발을 위한 연구에 달라붙은것은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이였다.

사실 먼적외선복사체에 대한 연구는 다른 단위들에서도 많이 진행되고있었다. 그러나 소성법으로 만드는 경우에는 많은 전기를 소비하면서도 실수률이 높지 못하거나 값비싼 원료들을 쓰는것으로 하여 제조원가가 매우 높고 비소성법으로 만드는 경우에는 수명이 짧은것으로 하여 널리 도입되지 못하고있었다.

이곳 과학자들이 연구사업에서 철칙으로 내세운것은 될수록 적은 에네르기와 쉽게 얻을수 있는 원료로 만들수 있는 수명이 긴 먼적외선복사체를 개발하는것이였다. 쉬운 길을 택할수도 있었다. 그러나 전기절약에 이바지하자고 연구사업을 시작한 자기들부터가 어떻게 하나 한W의 전기라도 더 절약해야 한다는것이 이들의 과학적량심이고 목표였다.

애국의 마음을 안고 떨쳐나선 과학자들의 피타는 사색과 헌신적인 노력은 마침내 소중한 첫 열매를 맺었다. 먼적외선복사체에 대한 연구사업을 시작하여 2년만에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의 설비들을 현대화하는데 이바지한 성과로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어린 감사를 받아안는 영광을 지닌것이다.

아직은 미숙한 자기들의 연구성과를 귀중히 여기시여 분에 넘치는 감사를 보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 고무된 과학자들은 연구사업을 더욱 심화시켜나갔다.

이 나날에 우리 나라에 흔한 공업폐설물을 가지고 에네르기소비가 거의 없이 먼적외선복사특성이 매우 좋은 재료를 얻어내는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먼적외선복사체를 만드는데 쓰이는 기초재료를 열 및 기계적인 충격에 안정하면서도 200℃의 온도에서 쉽게 만들수 있는 생산기술공정을 확립하였다.

2007년에는 이 연구성과를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 집중치료실들을 현대적으로 꾸리는데 도입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감사를 또다시 받아안았다.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성과를 낸 이들에게 학위론문을 쓸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연규정동무를 비롯한 과학자들의 생각은 달랐다.

더 많은 단위들에 도입하여 실질적으로 그 은이 현실에서 크게 나타날 때 론문도 쓰고 평가도 받아야 떳떳하다는것이 이들의 생각이였다.

여러 단위들에 도입하는 과정에 자기들이 개발한 먼적외선복사체의 경제적효과성을 검증한 과학자들은 2008년부터 생산기지를 꾸리고 확대도입에 들어갔다.

긴장한 전력문제를 푸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과학자들의 투쟁은 당적으로, 행정적으로 적극 떠밀어주는 정금석동무를 비롯한 연구소일군들의 믿음과 고무속에 더욱 고조되였다.

전국각지 여러 부문의 수많은 단위들에서 이들이 개발한 각이한 규격의 판형, 봉형먼적외선복사체에 대한 수요가 나날이 늘어났다.

만수대창작사, 순천화학련합기업소, 경성애자공장을 비롯하여 각지 닭공장, 돼지공장, 양말공장, 식료공장, 편직공장, 방직공장, 신발공장, 기계공장, 전기공장, 탄광, 병원, 고치생산사업소, 가죽이김공장, 제사공장 등 그 어디에서나 요구하였다.

몇명밖에 안되는 적은 인원으로 그 수요를 제때에 원만히 보장하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다.

그러나 힘들수록 보람은 컸다. 각이한 분야에서 그 경제적효과성이 더욱더 뚜렷이 나타났던것이다.

가열건조시간이 단축되여 이 공정에서만도 30%이상의 전기가 절약되였으며 제품의 실수률이 매우 높아지고 그 질이 훨씬 개선되였을뿐아니라 건조공정에 쓰이던 값비싼 수입제품들을 우리의것으로 밀어내여 큰 리득을 얻었다고 도입단위들마다에서 호평이 대단하였다.

불과 몇년사이에 먼적외선복사체는 전국의 120여개 단위들에 1만 수천대나 도입되였다.

이 나날에 이들은 전국적인 과학기술발표회들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여러개의 발명증서와 국가과학기술성과등록증, 도입증을 받았다.

명예도 보수도 바람이 없이 탐구의 길을 줄달음쳐온 연규정, 최광암, 신봉인, 리성조, 리성국동무들을 비롯한 먼적외선복사체연구집단의 성과를 나라에서는 최고과학기술상인 2.16과학기술상으로 높이 평가해주었다.

지금 이곳 연구집단은 보다 높은 목표를 내세웠다.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리용되고있는 각종 규격의 먼적외선복사체를 100% 국산화하자는것이다. 이렇게 되면 수만kW의 전기와 많은 자금을 절약할수 있다고 한다. 말하자면 10여명의 과학자들로 발전소를 몇개 건설하는것과 맞먹는 실리를 얻게 된다는것이다.

목표는 아름차지만 이들의 신심은 확고하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위성과학자거리건설에 떨쳐나선 군인건설자들을 비롯한 건설자들의 결사관철의 투쟁모습이 또다시 새로운 탐구의 출발선을 떠난 국가과학원 나노재료연구소 먼적외선복사체연구집단의 과학자들에게 지칠줄 모르는 힘과 열정을 안겨주고있다.

본사기자 려명희

숭고한 애국심의 발현—절약

◇전력문제, 에네르기문제는 의연히 긴장하다.

그러나 그 해결방도는 얼마든지 있다. 그중의 중요한 하나가 바로 에네르기절약이다.

조명용전력 하나만 놓고보아도 절약의 잠재력은 매우 크다. 2009년자료에 의하면 발전된 나라들에서 조명용전력의 소비량은 국가전력량의 12%정도, 세계적으로는 약 20%에 달하였다. 이러한 조명용전력을 절약하는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현재 많은 나라들에서는 에네르기소비를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새 세기 조명광원으로 주목되고있는 레드등(발광2극소자등)이 급속히 보급되고있다. 어느 한 나라에서 레드등조명과 관련한 경제성을 분석한데 의하면 형광등조명보다 년간 전력소비량은 34% 줄어들고 초기투자는 2~3년이면 보상할수 있다고 한다.

우리 나라에서 전국적으로 현재 리용하고있는 조명광원을 모두 레드등으로 바꾸면 여러개의 대규모발전소를 새로 건설한것과 맞먹는 막대한 량의 전력을 얻을수 있다.

에네르기를 절약할수 있는 잠재력은 어디에나 있으며 또 대단히 크다.

◇절약은 곧 생산이며 애국심의 발현이다.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고있는 지금 어디서나 가장 절박하게 요구되는것이 전력이고 에네르기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특히 에네르기절약문제는 그 량적크기를 론하는 단순한 실무적문제가 아니라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얼마나 진심으로 노력하고있는가 하는 애국의 열도를 판가름하는 사상적문제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사회적으로 절약투쟁을 강화하여 한W의 전기, 한g의 석탄, 한방울의 물도 극력 아껴쓰도록 하며 모두가 높은 애국심과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나라살림살이를 깐지게 해나가는 기풍을 세워야 합니다.》

에네르기를 10% 절약하는것은 10% 생산하는것보다 사회경제적효과가 더 크고 원가도 훨씬 적게 든다.

새로운 화력발전소를 짓고 거기에서 쓰는 석탄을 생산하는 탄광과 그것을 운반하는 철도를 개설하거나 수력발전소를 건설하자면 보통 10년이상의 기간이 요구된다. 그러나 에네르기를 절약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데는 1~2년이라는 짧은 기간이면 충분하고 한꺼번에 많은 투자를 하지 않고 분산적으로, 기동적으로 실현할수 있기때문에 투자의 효과성이 매우 높다.

세계에네르기회의에서는 에네르기절약을 미래의 1차에네르기자원의 하나라고 표현하였으며 여러 나라들에서는 원유, 가스, 석탄, 원자력 다음가는 5번째의 에네르기자원이라고도 하고있다.

누구나, 어디서나 한W의 전기, 한g의 석탄이라도 아끼고 절약할 때 생산의 동음은 더 높이 울리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우리의 귀중한 재부는 더 많이 창조될것이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에네르기절약기술을 적극 개발도입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지금 전국각지에서는 긴장한 전력문제, 에네르기문제를 어떻게 하나 우리의 자원과 기술로 풀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최근년간 김책공업종합대학 전기공학부 실장 박사, 부교수 김덕수동무를 비롯한 전력계통연구집단의 과학자들은 CNC부하전력관리체계를 개발도입함으로써 자강도에서만도 수만kW의 전력예비를 조성할수 있게 하였다.

지금까지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에 의하여 개발된 가치있는 에네르기절약기술들은 결코 적지 않다. 이 기술들이 현실에서 얼마나 은을 내는가 하는것은 그것을 대하는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관점과 태도에 달려있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숭고한 애국의 마음을 안고 누구나 한사람같이 떨쳐나 에네르기절약을 위한 기술을 애써 탐구하고 이악하게 받아들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할것이다.

전력소비가 적은 전기선별기에 비낀 마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누구나 보석과 같은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유익한 일을 스스로 찾아하여야 합니다.》

최근 여러 광산들의 희유금속선광장들에서는 정광의 품위를 더 높일수 있게 하는 코로나—고주파임풀스전기선별기가 도입되여 큰 은을 내고있다.

코로나—고주파임풀스전기선별기는 코로나방전이 일어나는 전기마당에 고주파임풀스전기마당을 함께 걸어주고 그속으로 광물알갱이들을 통과시키면서 유가광물을 갈라낸다.

일반적으로 광물의 전기전도도차이를 리용한 전기선별방법은 부유선광이나 중력선광에 비하여 생산성은 낮지만 환경오염이 적고 선별효과가 높으므로 주로 생산량은 작아도 경제적가치가 큰 희유금속과 귀금속광물들의 선광공정에서 마지막선별단계에 쓰이고있다.

이러한 전기선별기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여러 나라들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있는것은 코로나방전을 리용한 코로나—정전기선별기이다.

이 선별기에서는 선별효과가 전압에 비례하기때문에 광물알갱이들이 떨어지는 공간에 보통 30kV이상, 지어 120kV까지의 직류고전압으로 센 전기마당을 형성하여준다고 한다. 또 전기설비가 크고 복잡하며 값비싼 전자요소를 써야 할뿐아니라 더우기는 유가광물과 맥석의 전기전도도차가 최대로 커지도록 광석을 120℃이상으로 예열하여야 하므로 에네르기소비가 많다.

우리 나라 실정에 잘 맞지 않는 이 전기선별기에 도전해나선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고주파임풀스전기마당을 리용한 전기선별기를 개발하였다.

이 선별기의 제일가는 우월성은 낮은 전압에서도 선별효과가 높고 특히는 전력소비가 코로나—정전기선별기의 1/4밖에 안된다는것이다. 또한 일반전기 및 전자부분품들로도 얼마든지 만들수 있고 설비의 크기와 질량이 코로나—정전기선별기에 비하여 1/7~1/10로 훨씬 작다는것이다.

어느 한 광산에서는 류몰리브덴정광생산에 이 선별기를 받아들여 2차부선공정을 없애면서도 정광의 품위를 종전의 23~27%로부터 45%로, 몰리브덴의 거둠률을 70%로부터 거의 98%로 높였다고 한다.

개발자들은 코로나—고주파임풀스전기선별기에 대한 연구과정에 여러가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새롭게 해결하였다. 특히 이 전기선별기에 광석을 공급할 때의 온도를 40℃정도로 보장하면 된다는것을 해명한것은 이 공정에서 많은 에네르기를 절약할수 있게 한 가치있는 성과이다.

최근에는 설비를 대형화함으로써 생산능력을 훨씬 높이였다.

현재 이들은 여러가지 금속광물뿐아니라 비금속광물에도 이 새형의 전기선별기를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심화시키고있다.

우리의 구체적인 현실조건에 맞을뿐아니라 실리가 크고 성능도 높은 전기선별기를 개발한 주인공들은 뜻밖에도 한명선, 강정근동무들을 비롯한 고등교육도서출판사의 기자, 편집원들이였다.

더우기 주개발자는 누구보다 바쁜 편집지도일군인 주필 남창덕동무였다.

전문과학자나 기술자도 아니고 중요한 본신혁명임무를 무겁게 지니고있는 이들이 어떻게, 어느 시간에 이런 가치있는 연구사업까지 한것인가.

알고싶은것은 많았으나 우리는 구태여 묻지 않았다.

전력소비가 적은 이 소중한 창조물에 비껴있는 애국의 마음이 다 말해주었다.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하기 위한 탐구의 길을 스스로 걸으며 당의 품속에서 다진 지식과 기술을 깡그리 바치는것을 마땅한 도리로, 삶의 긍지와 보람으로 여기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키우시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체조선의 혁명적지식인들이다.

본사기자

전력관리체계개발자들 —김책공업종합대학 전기공학부에서— 본사기자 리진명 찍음

과학연구사업을 심화시키고있는 CNC부하

분산형동력체계

건축에네르기절약에 효과적인 열반사칠감

자료에 의하면 여러 나라들에서 건물관리운영에서 전력소비를 줄이고 여름철 도시의 열섬현상을 막기 위하여 중공미소구체열반사칠감을 건축부문에 많이 받아들이고있다.

중공미소구체열반사칠감은 유리 또는 자기질의 속이 빈 매우 작은 구체들이 칠감속에 여러층의 미세한 다공구조를 형성하여 태양열을 반사시키고 열을 차단시키는 작용을 하는 기능성칠감이다. 이 칠감은 태양열을 90%이상 반사시키며 열전도결수가 매우 작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산업 및 공공건물들의 지붕과 외벽은 여름철에는 태양열복사로 열을 축적하고 겨울에는 방출하기때문에 실내온습도보장에 많은 전력이 소비되게 하며 도시의 포장바닥면은 여름에 달아올라 도시생활에서 불편을 가져오고있다.

이로부터 건축부문에서는 실내온습도보장에 소비되는 전기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지붕록화를 비롯한 여러가지 연구를 진행하여왔으며 1970년대부터는 중공미소구체열반사칠감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고 한다.

중공미소구체열반사칠감을 건축부문에 받아들이면 건물의 운영과 관리에 소비되는 전력을 줄일수 있다. 이 칠감은 열반사와 단열기능을 함께 가지고있으므로 여름과 겨울에 다 효과를 나타내지만 특히 건물에 내리조이는 뜨거운 태양열을 반사시키는 효과가 큰것으로 하여 여름철 건물의 운영과 관리에 소비되는 전기를 많이 절약할수 있게 한다고 한다. 2009년자료에 의하면 어느 한 공장에서는 지붕면에 중공미소구체열반사칠감을 발라 태양열복사를 차단하고 반사시킴으로써 여름철 실내온도보장에 소비되는 전체 전력량의 25%에 해당한 전력을 절약하였다고 한다.

이 칠감을 리용하면 여름철에 도시의 건물지붕과 바닥포장면에 축적되는 태양열에 의해 주변지역보다 기온이 3~5℃ 더 높아져 생태환경을 악화시키는 열섬현상도 없앨수 있다고 한다.

본사기자

분산형동력체계는 콤퓨터에 비유하면 쉽게 리해할수 있다.

현재 널리 보급되고있는 개인용콤퓨터는 개별적인 사람들이 광범하게 리용할수 없었던 종전의 대형콤퓨터와는 달리 많은 사람들이 분산적으로 리용하거나 지역망을 통하여 호상련계속에서 리용효률을 높이면서 서로 덕을 보게 한다. 또한 매 개인의 필요에 따라서 체계를 바꾸기도 하고 자기 목적에 따라 변화시킬수 있기때문에 쓰기에도 편리하다. 이러한 개인용콤퓨터와 같이 소비자들이 다양한 수요에 따라 쉽게 리용할수 있는 소출력의 발전체계, 독립적인 소규모의 동력공급체계가 바로 분산형동력체계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에네르기를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절약하기 위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어야 하며 태양에네르기, 풍력에네르기를 비롯한 새로운 에네르기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에 힘을 넣어 그 리용전망을 확고히 열어놓아야 합니다.》

1990년이전까지만 하여도 발전설비는 단위용량이 커야 효률이 높고 경제적으로 유리한것으로 인정되여왔다. 이로부터 에네르기부문에서는 발전규모가 수백만kW를 넘는 대규모발전소들을 건설하여왔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경제생활과 환경보호에서 부정적인 후과가 나타나게 하였다. 현재 수십kW로부터 수천kW까지의 소형발전설비로 효률이 더 높은 발전소들을 건설할수 있는 기술이 확립됨으로써 종전의 심각한 부족점들이 해결되고있다.

규모가 작으면 원가도 적게 들고 수요에 따라 에네르기체계를 효률적으로 구성할수도 있으며 규모와 형식도 다양하게 바꿀수 있다.

그러므로 분산형동력체계는 경제적으로 효과적일뿐아니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적다.

자강도를 비롯하여 우리 나라 각지에 일떠선 중소형수력발전소들과 지열, 풍력, 태양전지 등에 의한 전력 및 열생산방식들은 중앙동력공급체계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별로 전력 및 열에 대한 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분산형동력체계의 한 형태이다.

현재 분산형동력체계구성에서는 재생에네르기원천에 의한 발전방식이 가장 활발하게 리용되고있다. 그것은 재생에네르기에 의한 동력체계가 용량을 수요에 따라 즉시에 정확히 보장할수 있는 우점을 가지고있기때문이다.

분산형동력체계를 널리 받아들이면 에네르기를 절약할수 있을뿐아니라 사회경제적효과성을 높이고 좋은 환경보호효과를 얻을수 있다.

본사기자

제14차 5.21건축축전 개막

제14차 5.21건축축전이 개막되였다.

주체90(2001)년부터 해마다 진행되는 건축축전은 당의 웅대한 구상따라 최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려 모든 건설물을 로동당시대의 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세우며 나라의 건축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이번 축전에는 전국의 건설부문 건축가들과 기술자들, 과학교육기관 일군들과 대학생들이 제출한 600여건의 건축설계현상모집작품, 과학론문들과 30여건의 건설설계프로그람 및 다매체편집물들이 출품되였다.

개막식이 12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있었다.

동정호건설건재공업상, 강영수도시경영상, 김경준국토환경보호상, 조선건축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인 리준혁 국가설계지도국 국장, 관계부문 일군들, 설계, 시공, 건재, 감독, 미술창작단위, 과학연구, 교육기관의 일군들, 건축가, 기술자, 교원, 연구사, 창작가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개막사를 심영학 조선건축가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선군혁명령도의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건축축전의 내용과 형식, 규모와 작품심의방법 등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보살펴주시며 축전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모든 참가자들이 축전을 통하여 과학연구성과들을 널리 보급함으로써 나라의 건축과학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고 건설에서 새로운 번영기가 펼쳐지도록 하는데 적극 기여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축전장을 돌아보았다.

【조선중앙통신】

제9차 건축미학토론회 진행

제9차 건축미학토론회가 12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오수용동지와 김용진내각부총리, 관계부문 일군들, 설계, 시공, 건재, 감독, 미술창작단위, 과학연구, 교육기관의 일군들, 건축가, 기술자, 교원, 연구사, 창작가들이 토론회에 참가하였다.

국가건설감독성 부상 양기성, 유원지총국 부총국장 서종길, 만수대창작사 부사장 김성민, 백두산건축연구원 실장 함동혁, 평안북도도시설계연구소 소장 김창식이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건설부문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밝히신 주체적건축사상과 리론, 건설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론증하고 기념비적창조물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주체조선의 심장이며 선군문화의 중심지인 수도 평양시를 모든 면에서 세계적인 도시로 일떠세우며 지방들에서도 건설의 불바람을 일으켜 도, 시, 군들을 자기의 얼굴이 살아나게 특색있고 아름답게 꾸려 온 나라를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시켜야 합니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공화국창건 65돐과 전승 60돐을 맞은 뜻깊은 지난해에 건축창조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주체건축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건축의 최전성기를 펼치실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전당, 전국, 전민을 《마식령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고 말하였다.

건설장들을 끊임없이 찾고찾으시며 인민군군인들과 건설자들을 영웅적위훈창조에로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가 있어 마식령스키장과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등 로동당시대를 대표하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수많이 일떠서게 되였다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심한 보살피심속에 수도 평양이 선군문화의 중심지로 더욱 훌륭히 꾸려지고 회령시와 창성군을 비롯하여 지방도시들과 마을들도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변모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주체의 사회주의건축의 본질을 인민대중제일주의건축이라고 새롭게 정식화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이바지하는 대상들을 더 많이 건설하도록 하시여 조국땅 어디서나 인민들의 기쁨이 넘쳐흐르고 행복의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울려퍼지고있다고 강조하였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건축의 조형화, 예술화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여 우리 나라 건축창조사에 일찌기 없었던 눈부신 현실을 펼치신데 대하여 깊이있게 해설하였다.

건축물들을 지대적특성과 대상의 사명에 맞게 형성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당의 주체적인 건축리론의 위대한 생활력이 힘있게 과시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건축가들과 설계가들, 건설자들은 창성군을 본보기로 모든 시, 군들을 변모시키려는 당의 숭고한 의도를 받들고 조국강산을 사회주의선경으로 일신시키는데서 맡은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원대한 구상을 충직하게 받들어 건설에서 새로운 번영기를 열어나감으로써 이 땅우에 인민의 행복이 넘쳐나는 천하제일강국, 주체의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우는데 적극 기여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우리 나라 리금철선수

2014년 아시아청소년레스링선수권대회에서 영예의 금메달 쟁취

우리 나라의 리금철선수가 타이에서 진행된 2014년 아시아청소년레스링선수권대회에서 영예의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남자 자유형레스링 42kg급경기에 출전한 리금철선수는 예선에서 스리랑카선수를 12:1로, 준준결승에서 끼르기즈스딴선수를 8:3으로, 준결승에서 인디아선수를 13:2라는 압도적인 점수차이로 이기고 결승경기에 진출하였다.

결승경기에 나선 그는 재치있는 다리잡기를 비롯한 특기를 잘 살려 이란선수를 10:0으로 보기 좋게 물리치고 1위를 하였다.

중국을 방문하였던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대표단 귀국

중국을 방문하였던 김진범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대표단이 12일 귀국하였다.

평양역에서 관계부문 일군과 주조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참사가 마중하였다.

재일동포조국방문단들 도착

김룡원, 권인학, 백동화를 각각 단장으로 하는 재일동포조국방문단들이 12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중국장애인련합회대표단 도착

정개 부리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장애인련합회대표단이 12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민족의 의사를 짓밟는 체제대결론

피뢰패당이 《통일대박론》이라는것을 들고나와 마치도 저들이 통일에 큰 관심이라도 있는듯이 너스레를 떨고있다. 피뢰들은 박근혜의 《통일대박론》을 요란스레 광고하며 《통일준비》니, 《통일시대대비》니 하며 여론을 어지럽히고있다. 이것은 흡사 장마당에서 제 리속을 따지는 좀스러운 보따리장사군, 투전판에 나선 사기협잡군을 방불케 한다. 이를 통해서도 민족의 운명문제, 조국통일문제를 수판우에 올려놓고 손익을 따지는 정치간상배, 역적무리로서의 현 피뢰집권세력의 추악한 정체를 다시금 똑똑히 알수 있다.

박근혜의 《통일대박론》은 조국통일문제의 본질과 성격을 심히 외곡하고 부정하며 겨레의 자주통일념원을 모독하는 용납 못할 반통일론이다.

우리 겨레 누구나가 근 70년간이나 지속되고있는 민족의 분렬을 가슴아파하며 조국통일을 일일천추로 바라고있다. 조국통일을 위해 우리 겨레가 바친 애국의 피와 땀은 통일운동사의 갈피마다에 력력히 아로새겨져있다.

그런데 박근혜는 《통일대박》이라는 천박하고 저속한 말을 들고나와 우리 겨레를 모독하고있다. 박근혜가 건달뱅이들이나 좋아하는 《대박》이라는 낱말을 통일이라는 신성한 말에 갖다붙인것자체가 조국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온넋을 바친 우리 겨레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 아닐수 없다.

통일을 경제문제의 종속물로 만드는 황금만능의 썩어빠진 론리가 깔린 《통일대박론》은 민족의 자주권실현을 위한 조국통일위업을 함부로 먹칠하는 극악한 반통일론이다. 조국통일에 대한 똑똑한 일가견도 없고 동족대결에 환장한 박근혜패당만이 그 따위 너절한 반통일론을 들고나올수 있다.

조국통일위업은 본질에 있어서 남조선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실현하며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나라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자주적위업이다. 조국통일을 실현하자면 무엇보다도 침략적인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야 한다.

민족분렬은 우리 민족의 의사도 아니였으며 자체모순에 의하여 초래된것도 아니다. 세기를 이어오며 줄기차게 기울여온 우리 민족의 피타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국통일이 실현되지 못하고있는 근본원인은 외세에 있다. 우리 민족의 분렬자체가 외세의 강요에 의한것이며 외세의 분렬리간책동으로 인하여 우리 겨레의 조국통일운동은 시련과 곡절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외세는 우리 민족에게 통일을 선사해줄수 없다. 외세가 추구하는것은 우리 민족의 대결과 분렬이며 그를 통해 어부지리를 얻는것이다.

조국통일문제의 유일한 해결방도는 민족분렬을 꾀하는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나가는것이다. 우리가 올해초에 남조선당국에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북남관계개선의 길을 열어나갈것을 제의하고 그를 위한 실천적조치를 취할것을 요구한것도 바로 그때문이다.

하지만 피뢰패당은 우리의 정정당당한 주장과 성의있는 노력에 정면으로 도전하여 외세와 야합하여 북침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려놓는것으로 대답하였으며 《통일대박론》따위를 흔들며 겨레의 조국통일위업에 도전해나섰다. 조국통일위업의 자주적본질을 외면하고 통일을 경제적관점에서만 론하며 《통일시대기반구축》이니, 《통일공감대확대》니 하고 떠드는것은 미국의 식민지주구, 장사치의 속물적근성을 가진 피뢰패당이나 할수 있는 반통일적망동이다.

《통일공감대확대》를 위한 국제공조의 강화를 꾀하고있는것을 놓고보아도 그렇다. 거기에서 민족자주정신을 꼬물만큼이라도 찾아볼수 있는가.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풀어나가면 해결될 통일문제를 놓고 그 무슨 《공감대확대》를 위한 국제공조를 꿰치고있는것을 자주통일을 한결같이 열망하는 우리 겨레가 어떻게 묵과할수 있겠는가. 조국통일의 직접적당사자인 우리 민족보다도 외세를 중시하며 그에 의거하여 리득을 얻겠다는 박근혜의 《통일대박론》이야말로 민족의 운명을 망쳐먹는 매국배족론이다.

《통일대박론》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요구인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해치는 반민족적대결론이다.

조국통일은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를 하나로 단합시키는 애국위업이다. 조국통일의 주체인 우리 민족이 하나로 굳게 단합하면 그것은 곧 우리 겨레가 바라는 통일이다. 반만년의 력사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은 마땅히 하나로 단결하여야 하며 또 반드시 단결할수 있다는것이 우리 겨레의 확신이다.

하지만 박근혜의 《통일대박론》은 민족의 단합을 외면하고있다. 피뢰들이 《통일시대기반구축》을 위해 그 무슨 《평화정착》이니, 《인도주의지원강화》니, 《동질성회복》이니 뭐니 하며 떠들어대고있지만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해나가겠다는 소리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다. 있다면 《북핵포기》니 뭐니 하며 동족대결을 선동하는 대결망발뿐이다.

《통일대박론》은 통일을 장사치의 자대로만 재게 함으로써 오히려 남조선사회에 통일에 대한 부정적견해를 류포시키는 엄중한 후과까지 빚어내고있다. 이것은 《통일비용》이니, 《통일항아리》니 하고 떠들며 남조선인민들속에 반통일기운을 은근히 조장하고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은 리명박역적패당의 죄악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동족에 대한 믿음보다 불신과 적대감만을 드러내는 《통일대박론》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바라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규탄배격을 받고있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박근혜는 《통일대박론》을 입에 올리기 전에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며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밝은 앞길을 열어놓은 6.15통일시대에 대하여 말하여야 할것이다. 6.15통일시대의 전진을 추동해온 북남공동선언들과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철저히 구현하고 리행해나갈 때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은 반드시 이룩된다. 이것을 부정하며 《통일대박론》을 들고나오는것은 조국통일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고 겨레의 순결한 념원을 우롱모독하는 반민족적망동으로서 우리 민족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다. 남조선 각계가 《통일대박론》을 가리켜 《대박》이 아니라 《대재앙》이라고 야유, 조소하고있는것은 우연치 않다.

박근혜의 반민족적인 《통일대박론》이 온 겨레의 저주와 규탄을 받고 력사의 오물통에 처박히는것은 필연이다.

최 철 순

일본이 선불을 맞을수 있다

얼마전 일본자민당 간사장이 미국을 행각하였다. 그는 워싱톤에서 한 강연에서 일본의 집단적자위권행사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억제력강화에로 이어진다느니, 미국의 전략에도 부합된다느니 뭐니 하고 아양을 떨었다.

이것이 미국을 등에 업고 해외팽창, 재침의 길로 본격적으로 나서려는 일본반동들의 야망의 발로이라는것은 두말할것 없다.

일본의 집단적자위권행사를 허용하는것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억제력강화에로 이어진다는것은 그야말로 지역의 위기상황과 그 해결책을 거꾸로 묘사하고있는 간특한 궤변이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이 열점지역으로 되여가고있는것은 부인할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동북아시아는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으로 되고있다. 첨예한 랭전구도가 굳어져가고있는 동북아시아에서 언제, 어떤 동기로 하여 수습할수 없는 군사적충돌이 일어나고 그것이 핵전쟁으로 이어질지 알수 없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있는 장본인은 다름아닌 미국과 그의 하수인인 일본이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을 내놓고 이 지역에 무력을 대대적으로 들이미는 한편 지역동맹국들을 규합하여 나토와 같이 일체화된 군사동맹을 내오려 하고있다. 이에 편승하여 일본도 군사대국화를 실현하고 군국주의길로 나가기 위해 발광하고있다.

이때문에 지역의 정세가 긴장해지고 첨예해지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마치도 정세가 다른 나라들의 군사력강화에 의해 긴장되는것처럼 나발을 불어대고있다.

일본은 여러 아시아나라들을 침략하고 태평양전쟁을 도발하였다가 패망한 전패국이다.

20세기 전반기에 일본제국주의는 파쑈도이췰란드 및 이딸리아와 군사동맹을 맺고 태평양전쟁을 도발함으로써 유럽에서 타오른 제2차 세계대전의 불길을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확대하는 엄중한 전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사실은 일본에 절대로 집단적자위권을 주어서는 안된다는것을 실증해주었다.

제2차 세계대전종결후 전패국 일본은 국제사회의 요구와 의지에 따라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할 권리를 포기하였다.

일본의 현행헌법 9조는 일본의 전투력보유와 전쟁, 집단적자위권행사 등을 금지하고있다.

오늘 일본이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아시아태평양지역은 지난 세기 전반기보다 더 혹심한 전쟁상태에 빠져들수 있다.

미국은 집단적자위권행사를 허용하려는 일본집권층의 시도에 찬성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집단적자위권행사허용을 위한 헌법해석변경과 관련한 정부방침의 골자를 결정하였다. 일본당국자들은 이것이 한정적인 허용으로 될것이라고 횡설수설하고있다.

그러나 그것은 로골적으로 헌법을 개정하고 완전한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된다.

일본의 집단적자위권행사는 미국의 전략에 부합될지는 몰라도 아시아태평양지역에는 해밖에 가져다주는것이 없는 매우 위험한 망동이다.

일본의 집단적자위권행사는 해외팽창과 재침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것이다.

하지만 일본당국자들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시대는 달라지고 힘의 관계도 변하였다. 미국을 등에 업고 군국주의부활을 시도하며 날뛰다가는 일단 유사시에 일본이 제일먼저 불벼락을 맞게 된다. 이것을 항상 명심해두는것이 좋을것이다.

리 경 수

부패무능한 괴뢰패당에 대한 항의와 규탄의 목소리

《세월》호참사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요구

남조선에서 려객선침몰사고와 관련하여 반《정부》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고있다. 인민들은 이번 대참사의 장본인은 현 피뢰집권세력이라고 하면서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반인민적악정을 폭로규탄하고있다.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련대는 특별성명을 발표하여 《세월》호참사를 초래한 장본인은 바로 박근혜이며 《정부》가 아이들을 죽였다고 하면서 당국은 애초에 그들을 살려내는데 관심이 없었으며 살인마들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단체는 론평, 호소문에서도 박근혜《정권》을 무능하고 부실한 《정부》, 비겁하고 부패한 관료집단으로 비난하였다. 단체는 민중의 안전과 생명은 아랑곳하지 않는 당국의 치하에서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로 내몰리게 되겠는가고 개탄하면서 민중을 배신하는 박근혜《정권》의 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려객선침몰사고와 관련한 대학생들의 시위투쟁도 련이어 벌어지고있다.

5월 8일 감리교신학대학 학생들은 서울 광화문앞에서 박근혜《정권》퇴진과 《세월》호참사특검도입 등을 요구하여 시위투쟁을 벌리였으며 한신대학교와 부산대학교 등 다른 여러 대학의 학생들도 청와대주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각총사퇴를 요구하였다.

남조선의 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는 5월 7일 사설을 발표하여 려객선침몰사고와 관련한 괴뢰당국의 처사를 규탄하였다. 사설은 현 집권자가 려객선침몰사고에 따른 자기에 대한 비난여론을 막고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려고 획책하고있다고 주장하였다.

박근혜가 《오래동안 묵인하고 쌓여온 잘못된 관행》 등에 침몰사고의 원인이 있다고 떠벌이며 그 무슨 《개혁》을 운운하는데 대해 폭로하면서 사설은 현 《정부》의 이러한 처사는 온 민중의 분노를 자아낸다고 강조하였다. 사설은 모든 진보민주세력들이 분노를 총폭발시켜 앞으로 있게 될 지방자치제선거에서 박근혜《정권》을 반드시 심판하자고 호소하였다.

본사기자 김 현 철

단 평 살인마의 아첨군

못된 아이 떠들면 매를 맞고 개가 너덜거리면 범이 물어간다는 말이 있다. 며칠전 《KBS》방송사 보도국장이라는자가 그 신세가 되였다.

지금 온 남녘땅이 《세월》호참사로 초상집이 되여있는데 때아닌 먹자판을 벌려놓은 이자는 려객선침몰사고사망자수가 걸보기에는 많아 보이지만 년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에 비해볼 때 그리 많은것이 아니라는 망발을 늘어놓았다.

권력에 아부굴종하며 언론인의 사명을 저버린지 오랜 이자는 분명 반인민적악정으로 사상 최악의 대참사를 빚어내고 여론의 뭇매를 맞고있는 박근혜를 두둔하여 점수를 올려보려 하였을것이다. 그런데 그 약삭바른 타산이 일을 쳤다. 피해자유가족들은 물론 사회 각계가 이자의 온당치 못한 처사를 규탄하며 분노를 터치였다. 방송사측이 동이 닿지 않는 소리로 구구히 변명하였지만 소용이 없었다. 합동추모장소를 찾았던 《KBS》방송사패들은 유가족들에게 덜미를 잡히워 5시간동안이나 곤욕을 치르었다.

일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분을 삭일수 없었던 유가족들은 청와대로 달려가 항의시위를 벌리였다. 결국 《KBS》방송사 보도국장이라는자는 박근혜에게 아첨한다는것이 그에게 화만 덧씌우고 제 얼굴에도 먹칠을 하였다. 이런것을 두고 곤장지고 매벌이를 한다고 한다.

명색이 언론인이라는자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민심이 어떻게 흐르는지도 분간 못하고 살인마를 편들며 구린 입을 놀리였으니 봉변을 겪는것은 응당한것이다.

허 영 민

력사의 진실앞에서 대답해보라

어디가 락원이고 어디가 지옥인가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는 학생소년들을 나라의 귀중한 보배로, 조국의 미래로 내세워주시며 천만가지의 복을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대해같은 후대사랑의 결정체이다.

그이의 자애로운 사랑의 품속에서 우리 인민들과 학생소년들은 얼마나 크나큰 행복을 누리고있는것인가.

유치원과 애육원, 육아원을 찾으시며 아이들을 위한 행복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시고 옥류아동병원, 문수물놀이장, 마식령스키장을 비롯한 현대적인 문화후생시설들을 마련하시여 우리 인민들과 어린이들이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사랑을 뜨겁게 전하며 잠 못 이루는 우리 학부형들이고 자식들이다.

그런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오늘은 또다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세상에 둘도 없는 학생소년들의 행복의 요람으로 훌륭히 개건하도록 하시고 준공식에 몸소 참석하시여 우리 자식들의 미래를 따뜻이 축복해주시였으니 이 사랑, 이 격정을 과연 무슨 말로 어떻게 표현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그럴수록 정말로 생각이 깊어진다. 오늘의 이 행복을 남녘의 어린이들과 학부형들과 함께 할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자식을 둔 어머니로서 옥류아동병원, 문수물놀이장, 마식령스키장을 비롯한 현대적인 문화후생시설들을 마련하시여 우리 인민들과 어린이들이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사랑을 뜨겁게 전하며 잠 못 이루는 우리 학부형들이고 자식들이다.

그런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극이 생겨나고 나어린 학생들이 생죽음을 당해야 하는가.

집권자라고 하는 박근혜의 망동은 더욱 놀라움을 자아낸다. 숱한 아이들을 바다속에 처넣고도 가책이 없이 스산한 초상집에 이름만 들어도 치떨리는 양키의 피수 오바마를 끌어들여 히히닥거렸으니 이런 극악한 살인마가 통치하는 남조선이 어찌 사람 못살 인간생지옥으로 되지 않을수 있겠는가.

북과 남의 어디가 락원이고 어디가 지옥인지 현실은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어버이의 손길아래 우리 아이들의 행복이 갈수록 꽃피여나는 내 조국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겠다는 자각과 결심이 이 심장을 불태워주고있다.

류경건설관리국 부원 김 경 주

행복의 노래소리는 더 높이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된 소식에 접하고 너무도 크나큰 격정에 휩싸여 날과 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다. 야영소를 최상의 수준에서 개건하도록 온갖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고 준공식에 몸소 참석하시여 학생들과 함께 계시며 조국의 미래를 축복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후대들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그 사랑을 그대로 안고오시였구나 하는 생각에 저절로 눈굽이 젖어들었다. 풍치아름다운 송도원에 우리 학생들을 위한 야영소를 일떠세우도록 하시고 그들의 자애로운 친어버이가 되시여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쳐와 장군님은 전선으로 아이들은 야영소로라는 노래의 구절구절을 마음속으로 외우며 울었다.

그럴수록 우리와 한지맥으로 잇닿은 남조선의 불행한 현실은 나의 가슴을 아프게 파고들었다. 송도원에 펼쳐진 황홀경과 《세월》호가 침몰한 진도앞바다의 스산한 참상은 얼마나 대조적인가.

재난을 당한 남녘의 어린 학생들이 정말 불쌍하다. 애타게 구원을 바라며 손가락이 다 닳도록 벽을 허빈 그들의 애절한 모습이 눈에 선하다. 또 돌아오지 못한 자식들을 부르며 바다가에서 통곡하는 학부형들의 피의 절규가 귀전을 때리는것만 같다.

그런데 박근혜는 그들의 아픔을 과연 손톱만큼이라도 느꼈는가. 정의와 진리를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인륜을 짓밟고 숱한 아이들을 바다에 서슴없이 제물로 바치고도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고있는 극악한 살인마에 대한 저주와 증오를 금할수 없다. 이런 천하의 악녀가 《인권》이니, 《삶의 가치》니 하고 우리에 대해 악담질을 해대고있으니 이 얼마나 뻔뻔스러운 망동인가.

피뢰들이 아무리 험담을 늘어놓아도 저 하늘의 해를 가리울수 없듯이 행복의 야영길에서 부르는 우리 학생소년들의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는 더 높이, 더 우렁차게 온 세상에 울려퍼지게 될것이다.

대동강구역 문흥소학교 교원 안 혜 경

미래가 없는 암담한 사회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준공식을 텔레비죤화면으로 보느라면 그저 《야! 야!》하는 감탄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야말로 한폭의 아름다운 그림이고 황홀경의 극치이다. 이런 아이들의 무릉도원이 어디에 또 있겠는가. 위대한 어버이의 품속에서 마음껏 뛰노는 우리의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다. 나도 그 시절로 되돌아가 그 행복의 절정을 마음껏 날아예고싶은 심정이다.

그럴수록 수백명 어린 학생들의 생명을 앗아간 남조선의 진도앞바다에서의 《세월》호참사가 눈앞에 어려온다. 제도를 잘못 만난탓에 꿈과 희망도, 소중한 목숨도 다 차디찬 바다속에 버리지 않으면 안되였던 그 수많은 학생들을 생각하면 동족으로서 아픈 마음을 금할수 없다. 그럴수록 박근혜와 같은 악독한 통치배들을 더욱더 저주하게 된다.

세상사람들은 북과 남의 판이한 현실을 통해 남조선이 박근혜의 반역《정권》과 함께 침몰해가는 미래가 없는 사회라는것을 웅변으로 체험하고있을것이다. 우리 공화국이야말로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믿고 따르고 의지해야 할 참된 삶의 터전이다.

그런데도 피뢰패당이 그 무슨 《영유아》니 뭐니 하는 터무니없는 악담을 줴치고 지어 《급변사태》의 개꿈을 꾸고있는것은 실로 가소롭기 그지없다. 반인민적악정속에 처참히 붕괴되고있는 곳은 박근혜가 군림하는 남조선이며 인민들의 대중적항쟁에 의해 급변사태가 당장 일어날 곳도 다름아닌 남조선이다.

나는 세계에 대고 소리치며 말하고싶다. 옛이야기에서 나오는 천당과 지옥을 보고싶다면 송도원의 황홀경과 진도의 대참사를 보라.

모란봉구역 긴마을2동 초급당비서 고 선 희

《아이들을 살려내라!》, 《박근혜가 책임져라!》

통채로 뒤집어진 려객선 《세월》호, 사람잡아먹는 《악마의 배》로 락인된 이 바다의 피물과 더불어 남조선사회가 통채로 뒤집혀지고있다.

온 남조선땅이 애어린 꽃망울들을 무참히 짓밟은 썩어빠진 사회제도에 대한 울분과 원한으로 세차게 뒤흔들리고있다.

《아이들을 살려내라!》

사랑하는 자식들을 억울하게 빼앗긴 부모들의 피터지는 곡성이 금시 들려오는것만 같은 참담한 사진들이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허비고있다.

세상을 잘못 만난탓에 짠물속에 빠져 싹조차 틔워보지 못한 불행한 씨앗들, 며칠씩이나 바다물속에 잠겨 형체를 가려보기 어렵게 된 아이들의 참혹한 모습앞에서 사람들은 피타게 절규하며 오열을 터뜨린다. 아직도 자식들의 시신조차 건지지 못한 부모들의 심정은 또 얼마나 참담하랴.

하늘에 빌면, 바다에 빌면 기적이 일어날것만 같아 허무한줄 알면서도 땅바닥에 머리를 찧고 또 찧건만 원한품고 바다속에 수장된 불쌍한 자식들은 불러도 불러도 대답이 없다.

이번 려객선침몰사고는 황금만능, 리윤제일의 더러운 법칙이 지배하는 남조선땅에서 언제라도 일어날 사건이였다. 하지만 아이들은, 사람들은 능히 살려낼수 있었다. 그런데 그 숱한 생명이 어이없게, 억울하게 수장되여버렸다.

누구때문인가.

희세의 랭혈동물 박근혜패당때문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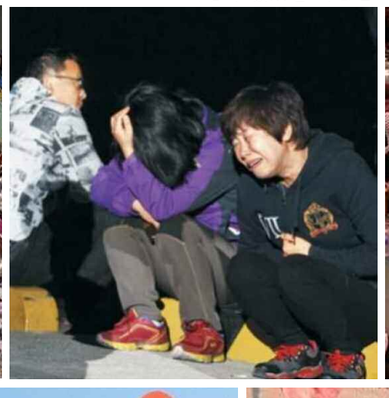
피해자가족들이 아이들이 죽어간다고 발을 동동 구르며 구조를 애타게 호소하고있을 때 누구라 할것없이 책임회피에 여념이 없었던 비겁한 무리들, 인민들이야 죽든살든 관계없이 저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동족대결에 총력을 집중할수만 있으면 그만이라는 바로 이것이 입만 터지면 《국민행복》을 운운하고 북과 남의 《신뢰》를 떠드는 박근혜패당의 더러운 반역정치이다.

《박근혜가 책임져라!》

노호한 민심이 절규한다.

분노의 초불들이 타오른다. 이제 저 초불들은 거세찬 홰불바다가 되여 더러운 악의 본산 청와대를 송두리채 불살라버릴것이다.

본사기자



ㄱ-410741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